

통일을 준비하는 축제의 장

서울캠 오는 23일 대동제 개막 ... 경주캠 22일부터

2001년 목격대동제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참을 수 없는 대동의 즐거움'을 기치로 열리는 이번 대동제는 △·학부 학생회 강화 △진정한 대학문화에 대한 창의적인 고민 △NMD·TMD 반대에 대한 학생들의 의지 표출 등을 주제로 한다.

총학생회(회장=김홍민·지교4)가 진행하는 주요 행사일정을 살펴보면 △23일=통일 토론회 참가학생 선발을 위한 통일 문답대회, 통일의 걸림돌 제거를 위한 예비역 쾌차기 △24일=한총련 이적규정 철폐,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종이화 접기, 통일

을 위한 서명운동과 깃발 꽃기 등 주로 통일과 관련된 행사를 펼친다. 또한 대동제 마지막 날에는 '저항 2001'이라는 대학문화 한마당과 레이져쇼도 열릴 예정이다.

총학생회는 이번 대동제에서 지난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상업적인 행사는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홍민 총학생회장은 "주점 하나를 하더라도 절거민 단체 등 여러 사회단체와 연대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김태광·국교4)는 대동제 기간동안 중앙도서관 앞에서 △우리 차와

과자를 판매하는 대동동작장터 △널뛰기, 투호, 제기차기 등 대동 놀이마당 △양담배 피지 않기 운동 등을 진행한다.

학복위의 한 관계자는 "우리 것의 소중함을 알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리타분하다고 인식되는 우리 것도 훌륭한 점이 많다는 것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동제를 앞두고 김홍민 총학생회장은 "올해가 통일의 문을 여는 해인 만큼 대동제 대부분의 행사가 통일의 의미를 갖도록 기획했다"며 "참여하는 학생들마다 통일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대동제를 즐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2면(학내보도)

한편, 경주캠 임석대동제가 '경주시민과 일반동국인이 함께 보는 동국TV 특집방송'을 기치로 내일(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경주캠 총학생회(회장=이교형·관경4)의 주요 일정은 △22일=TBC공개방송 및 백상연 △23일=자장면과 맥주 빨리 먹기, 키스 오래하기 등으로 진행되는 동국 기네스 및 '동국 최강의 퀴즈왕을 찾아라' △24일=커플 이벤트(최강 커플 찾기) 등이다.

▶관련기사 2면(경주보도) 대학부

flower@dongguk.edu



발 밑의 초강국 ...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김태광·국교4)는 지난주 5.18정신계승주간 행사 일환으로 성조기, 일장기 밝기 운동을 진행했다. 학생들이 지나는 길 옆에 선전물을 설치해 미국을 반대하는 이유를 알리고 있다.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지면안내

- ☞ 통일문화, 한라에서 백두까지 6, 7면
- ☞ 5.16 쿠데타 40주년 학술토론회 4면
- ☞ 조화의 예술 '하모니즘' 5면
- ☞ 여성의 자리찾기 11면



자해지수

정 승 석 (불교대 불교학부)

밤새도록 컴퓨터 앞에 앉아 채팅, 게임, 또는 이곳저곳의 탐색을 즐기다가 동틀 때 잠들다 보면 잠실 때가 되어서야 일어나게 된다.

늦게 시작한 하루지만 그다지 바쁜 건 없다. 우선 급한 일은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 간단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손가락만 잘 사용하면 누군가 자랑삼아 올려 놓은 것을 복사해 내것으로 개조할 수 있다.

현실에서 흔히 보이는 것은 다 시사하다. 인터넷에는 아주 색다른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 매일 더 격렬하고 자극적이고 파괴적인 것들을 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전에 보았던 잔인하고 끔찍러운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대할 수 있을 만큼 감심장이 됐다.

재밌는 것만 찾아 맘대로 즐기다 보니, 맨 정신으로 있는 것은 견딜 수 없다. 컴퓨터에서 벗어날 때면 오래 술을 찾게 된다. 오후부터 하루를 시작했으니, 밤이아말로 나의 정상적인 활동 무대이다. 나 같은 젊은이들이 갈수록 많아지므로, 밤거리엔 내 구미대로 들들 꽃도 많다.

하지만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기엔 나의 경제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 포르노 사이트를 순방하면서 다 메꾸지 못한 욕구를 대리 충족한다.

요즘 젊은이들의 모습이 모두 이러하지는 않겠지만, 대체로 공감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 탐닉에 빠져 있는 현대인의 모습만은 아니다.

부처님이 보기에 이러한 양태는 자신을 해치는 자해의 삶이다. '범구경'에서 부처님은 이 양태를 여섯가지로 지적했다. 이 중의 몇 가지가 내게 해당되는지를 헤아려 자해(自害) 지수(指數)로 삼아보면 어떨까.

해가 높ی 때울랐을 때까지 늦잠 자는 것 / 습관적으로 게으르고 태만한 것 / 잔인하고 사나운 마음을 가지는 것 / 늘 취해 있고, 술 마시기를 좋아하는 것 / 때 아닌 시간, 예컨대 밤이 깊었는데 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것 / 절제 없이 사된 음행을 하는 것.

전자불전연구소 세미나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전자불전연구소(소장=한보광·선학)는 세계전자불전학회 학술대회를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나향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불전 전산화에서의 국제협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학술대회는 미국, 일본, 대만 등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참가해 △문헌분석 △대장경 △온라인 상의 문헌 작업 △문자와 인코딩 등에 대한 국제적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전자불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는 불전을 전산화하며 드러나는 문제들을 심도있게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천진대와 교류협정 29일 교무위원회의실

본교는 오는 29일 교무위원회의실에서 중국 천진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을 맺는다.

협정 내용은 △교수 및 학생 교류 △공동연구와 학술회의의 공동주최 △학술정보자료 교환 등이며, 송석구(철학) 총장과 최순열(국어교육) 연구처장, 천진대학의 교무위원회 주임 등이 조인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연구처의 한 관계자는 "이번 협정을 통해 중국 자매대학과의 학술, 문화 등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남총련 4년만에 출범 성사

지난 18일 본교 만해광장에서 이산라 의장 취임



출범식 사전마당에서 문예단이 율동을 하고 있다.

제9기 서울 남부지구 총학생회 연합(이하 서남총련)이 지난 18일 본교 만해광장에서 4년만에 출범했다. 서남총련은 지난 96년 연세대 사건과 97년 단국대 조직사건 등으로 탄압을 받으며 지난 4년간 출범하지 못하는 시련을 겪어왔다. 그러나 지난해 6.15남북공동선

언 이후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학생운동이 활기를 되찾으면서 출범식을 갖게 된 것이다.

본교를 포함해 중앙대 등 서울 지역 남부지구 6개 학교 4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출범식에서 단국대 이산라 총학생회장이 의장으로 취임했다.

이산라 의장은 취임사에서 "6.15 공동선언 이행과 미국 반대를 위해 7만 5천 학우들의 역량을 결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출범식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21주년을 기념하는 시간도 마련 5.18을 재현한 연극이 진행됐다.

노조, 3차 임금·단체협상 진행

학교측과 임금합의 시간 걸릴 듯

지난 18일 임금·단체협약 3차 협상에서 노조와 학교가 임금부문에 대해 입장차이를 보이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협상에서 노조가 제시한 지난 해보다 3.7%를 인상하고 월급요 9만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임금요구안에 대해 학교측은 5%인상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에 이

르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단체협약 중에서도 정관정원 운영 조정과 사무기능직 인사제도 개선 부분은 합의까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직원들이 본교 의료원 시설 이용시 의료원 직원과 동일한 감면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에 대해 합의했지만 적용

시점을 놓고 학교측과 노조의 의견이 엇갈렸다. 한편, 협상 결과 타결된 사항은 △징계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출석인원 1/2에서 2/3 이상 찬성으로 변경 △직원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단체협약사항 문구변경 △직원대상 후생복지 시설 확충 등이다.

이와 관련해 직원노조 김병호 사무국장은 "앞으로는 실무자들 끼리 소위원회를 꾸려 협상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빠르면 이달 말 협상이 최종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차전공결정 28일부터 4일간

복수·연계전공 신청도 함께

서울캠 2학년 재학생들의 2차 전공결정과 복수·연계 전공 신청이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편입생을 포함한 2학년 재학생 △1차 전공결정자 가운데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 △2학년 2학기 복학생이다. 복학생의 경우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복학원과 같이 신청해야 한다. 이번엔 선발하는 전공별 최대인원은 <표>와 같다. 전공신청은 자신이 속한 모집단위에 개설된 학과중 4지까지 가능하며, 복학생은 입학할 때 소속된 모집단위에 개설된 전공만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복수·연계전공은 소속된 모집단위와 관계없이 지원

<표>

| 단 과 대 | 최대인원 |
|---------------------------------|------|
| 문과대 | 100% |
| 경영대, 생명자원과학대 | 70% |
| 불교대, 이과대, 사회과학대 공과대, 정보산업대, 예술대 | 50% |

할 수 있으며, 선발인원은 전공별로 지난해 1차로 선발되고 남은 인원을 기준으로 배정된다.

전공결정과 복수·연계 전공의 신청원은 단과대 교학과에서 교부받아 학업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교학과에 제출하면 되고, 결과는 오는 8월 10일 단과대별로 공고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2면(경주보도)

경주캠 뒷산 또다시 화재발생

지난 17일 임야 600여평 피해

지난 17일 오후 10시경 경주캠 금장생활관 뒷산에 불이나 임야 약 600여평을 태우고 4시간만인 다음날 오전 2시에 완전 진화됐다.

이날 화재발생원인은 당일 금장생활관 축제 때 터진 불꽃판에 의한 것으로 추정됐지만 원인 미상으로 최종 결론지어졌다. 화재발생 후 20분이 지나 출동

한 소방차 2대와 생활관생 등 50여명이 1차 진화에 나섰다. 이후 비상연락망을 취해 도착한 교직원과 소방대원 등 200여명이 추가 투입돼 본격적인 진화에 나서 잔불 제거작업까지 마무리했다.

지난해 노천극장 뒷산 화재 이후 산불사고가 또다시 발생해 학교측의 철저한 관리와 학생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동대신문 기획광고

발전기금 ARS 7000-119

오월의 선물, 대동제!

이제 먹고 마시는 대동제가 아닌 가슴에 남는 축제의 장이 펼쳐집니다. 지난해부터 불기 시작한 통일바람이 동약을 강타합니다. 이제 '북녘'을 느껴 보십시오. 다채로운 통일관련 행사와 함께 신명나게 돌아봅시다.

동대신문사

대동의 즐거움으로 하나되는 동악



사진: 사진지부

‘대학문화의 꽃’ 대동제가 오는 23일 막을 올린다. 대동제를 맞아 각 단과대를 비롯한 동아리, 소모임 등에서는 여러 행사들을 준비했다. 이번 대동제는 각 대학들의 ‘복한 바로알기’ 흐름에 맞춰 총학생회를 비롯해 학생복지위원회, 사법대가 준비한 통일관련 행사들이 눈에 띈다. 지난해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조성되고 있는 남북화해 분위

기를 대동제에서 이어간다는 취지이다. 특히 총학생회가 준비한 통일 문답대회나 사법대가 마련한 이북음식 만들기 행사는 일반 학생들에게 생소한 북한에 대해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문과대, 문화재 연구회는 제기차기, 널뛰기, 투호, 고무줄 등 우리 고유의 옛 놀이를 준비해

자한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수 있는 우리 것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그러나 각 단과대에서 기획하고 있는 행사들 대부분이 예년과 같거나 유사한 것들이어서 아쉬운 면을 보인다. 축제 때마다 보이는 물풍선 던지기, 맥주 빨리 마시기와 지난해 다가온 시선을 받았던 노예면 등은 올해에도 계속 열린다.

지난해 주최측의 미숙한 진행과 학생들의 참여부족으로 행사들이 지연되거나 취소됐던 점도 상ใจ해야 할 부분이다. ‘참을 수 없는 대동의 즐거움’이라는 2001년 대동제의 모토답게 올해 대동제가 학생들의 즐거움이 가득한 축제의 장이 되길 기대해 본다.

김혜진 기자
atom@dongguk.edu

불교대
주점=23-24일, 우체국 앞

문과대
△테마별 사진전=22일, 명진관 앞
△출다리기=23일, 오후 1시, 명진관 앞
△제기차기=23일, 오후 3시, 명진관 앞
△추억의 맛보기=23일, 오후 1시, 명진관 앞
△바디 페인팅 : 23-24일, 12시, 명진관 앞
△인연만들기=24일, 12시, 명진관 앞
△물풍선 잡기=24일, 오후 1시 명진관 앞

이과대
△매점=23-25일, 명진관, 과학관 앞
△주점=23-24일, 명진관 앞
△물풍선 던지기=23-25일, 명진관 앞
△알까지 대회=23-25일, 명진관 앞
△노예팅=23-25일, 명진관 앞

법대
△주점=23-24일, 혜화관 앞
△ ‘퀴즈가 좋다’ =23일, 오후 4시, 나체발
△영화제=23일, 오후 8시, 나체발, 엑소시스트 상영
△법대 가요제=24일, 오후 6시, 나체발

사회과학대
△경찰행정학과

· 주점=23-24일, 동국관 앞
· 무술시범=23일, 동국관 앞
△정치외교학과 주점=24일, 동국관 앞
△북한학과 주점=23일, 동국관 앞
△신방과=23-24일, 혜화관 앞
· 주점
· 우유 빨리 마시기
· ‘땀다리를 잡아라’
· 연인끼리 빼빼로 먹기
·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
· ‘뽕뽕뽕’

경영대
△산하공연=24일, 12시, 불상 앞
△광고학과=23-24일, 혜화관 앞
· 통일광고에서 미니 농구대회
· 철권3 경진대회
· 국내의 광고 비디오 판매
· 알까지 명인전
· 대형스크린 설치
· 칭찬합시다
-사랑고백 영상제
-Best, Worst 광고
△회계학과 주점=23-24일, 통일광장

생명자원과학대
△식물자원학과 주점=23-24일, 혜화관 앞

공과대
△주점=23-24일, 원흥관 1층 앞
△락 페스티벌=24일, 오후 2시, 만해광장

△이대산 시화전시=23-25일
정보산업대
△Network 게임대회=23-25일, 6시, 학생회실 - 스타크래프트, 포트리스, 테트리스
△타자수 맞추기 게임=23-25일, 12시, 정보문화관 정문

사법대
△주점(추모단체와 연대)=24일, 학림관 앞
△열전 달리는 예비교사=23일, 학생회관 앞
△가교 이북 음식 만들기=23-24일, 학림관 앞
△교육학과 전교조 물품판매=23-25일, 학림관 앞
△체교 무예시범=23-24일, 학림관 앞

예술대
△주점=23-24일, 학술문화관 앞
△빛모듬, 전진새날의 No Cut 영화제=23일, 문화관 지하 2층 스튜디오

야간강좌총학생회
△소모임 문화제=24일, 오후 5-8시, 동국관 앞 통일광장
· 야초산하 울동패 공연
· 정보통신학과 락 소모임 크래머
· 대중가요 소모임 무풍 공연

학생복지위원회
△대동음악장터=23-25일, 중도 앞

△대동놀이마당=23-25일, 중도 앞
△양담배 피지 않기 운동=23-25일, 중도 앞
△이북물품 전시=23-25일, 중도 앞

동아리
△노학연대 주점=23-24일, 학생회관 앞
△동국문화회 시화전=23-25일, 팔정도
△만화열 일러스트 전시=23-25일, 팔정도
△그리고... 그림 회화전시=23-25일, 팔정도
△특집 관화전시=23-25일, 팔정도
△디디돌 영화제=22-24일, 학림관 소강당
△애드러쉬
· 콜라 시음회=24일, 12시, 중도 앞
· 합합 프로젝트=24일, 오후 2시, 불상 앞
△동국 서도회 전시=23-25일, 팔정도
△동그라미 속보전=23-25일, 팔정도
△통계조사연구회 의식조사=23-25일, 다향관 앞
△HAM=23-25일, 불상 앞
△문화재연구회 전통놀이=24일, 불상 앞
△TIME 커버지 전시=23-25일, 팔정도
△선문부 시연=23일, 오후 4시-5시, 불상 앞

‘창조론과 진화론’ 세미나

내일(22일) 덕암세미나실에서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학술세미나가 내일(22일) 오후 2시 30주년 기념 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불교문화연구원(원장=권기중·불교학) 주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명지대 김상현 교수가 ‘생명창조의 과학적 증거’ △중앙대 추종길 교수가 ‘생물진화의 유전학적 배경’ △전남대 이종표 교수가 ‘연기론적 관점에서 본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본교 목경배(불교학) 교수와 광노순 전 목원대 교수, 상지대 최종덕 교수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2학기 우수장학금 신청

오는 30일까지 학업지도교수에게

학생처(처장=김용기·수학교육) 학생복지실은 오는 30일까지 2001학년도 2학기 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우수장학은 1학기 평균점 3.0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본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학업지도교수에게 제출하면 된다. 2학기 등록금의 30%를 감면받는 우수장학생의 선발기준은 △학업성적 60% △사회봉사 10% △가정형편 20% △학업지도교수 평가가 10%이다. 또한 교외장학생도 우수장학을 신청할 학생 중에서 선발한다.

이와 관련해 학생복지실의 한 관계자는 “만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총여 ‘색다른 성’ 교육 주간

중도·팔정도에서 다음달 1일까지

총여학생회(회장=전이지숙·회계3)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색다른 성’을 주제로 성교육 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동아의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주제로 열리는 성교육 주간은 성에 대한 이론적 지식에서부터 피임법에 대한 강연까지 다양한 행사가 중앙도서관, 팔정도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반성폭력 학칙과 성치식도에 관한 테스트 등 거리가 먼 행사도 간혹만 팔정도 앞에서 열리며, 한국여성민우회 강사를 초청해 ‘다시 배우는 성교육’ 성폭력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제로 29, 30일 학림관에서 강연회를 연다. 이외에도 호신술 강연이 31일 팔정도 불상 앞에서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총여학생회 양김유미(영문3) 부학생회장은 “그동안 대부분의 성교육은 이론적이고 형식적이었다”며 “학내 올바른 성문화 형성을 위해 성교육주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자난 17일 팔정도에서는 21년전 꽃처럼 살다간 열사들을 기리려 ... 는 마당극이 펼쳐졌다. 공연하는 이들의 몸짓에서 그날의 한이 느껴지는 듯하다.”

염태규 기자
snail11@dongguk.edu

회전무대

MC²

O...집중력을 키우세요!
요새 도서관 열람실에서 공부하려면 귀를 막고 집중해야 한다는데, 알아보니 계속되는 교수회관 공사 소음으로 인해 열람실의 학생들은 공부에 큰 지장을 받는다고.

더구나 공사시간에 대한 한마디 말없이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낮 시간에 공사를 진행해 인내력까지 시험하게 만든다.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Q(불만지수)=M(학생수)C(씨이~)...”

안내판의 침묵

O...옛 것은 오래될수록 좋다!
학림관 교수연구실 안내판을 쳐다보면 학생들은 연구실을 찾지 못한 채 돌아선다는데.

알아보니 새로 임용된 교수 대신 퇴임한지 한참 지난 교수들의 이름이 여전히 적혀 있기 때문이라고.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인 안내판 때문에 연구실을 찾는 학생들만 혼란스러우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아아 낚은 낚지만은 안내판은 낚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디다”

비애

O...비만오면 이슬이슬하다?
명진관에서 상륙원으로 가는 길에서 학생들이 위험한 행동을 보인다는데.

빗물이 배수가 되지 않아 고인 물을 피해 다니느라 그 곳을 지나가려는 학생들 대부분이 난간위로 올라가 지나간다고.

도서관 공사로 인해 ‘상륙원 가는 길’이 되어버린 이곳도 신경써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한마디 “상륙원을 가려면 필요한 3가지는 인내력, 담력 그리고 출타기 기술!”

난지도

O...정보문화관 옥상에 마련된 휴식처에서 학생들이 쉴 곳을 찾지 못한다는데.

알아보니, 얼마 전 열린 스카게티 국수 다리 경연대회에 작품을 출품하기 위해 학생들이 본드와 약품 등으로 벤치를 더럽혔다고.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은 학생들 때문에 함께 사용하는 휴식공간이 쓰레기장으로 바뀌었으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휴식공간 매뉴에 본드 스카게티가 ... 난지도 레스토랑인가!”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2001학년도 2학기 장학금을 받고자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기 바랍니다.

- 신청장학액(장학금액) : 우수장학(등록금 30%)**
가. 단과대학수석장학 및 전공(학과)수석장학은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성적순에 따라 선발함.
나. 신규 교외장학생도 우수장학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중에서 우선 선발함.
-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재학생으로 장학금을 받고자하는 자**
가. 2001-1학기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 - 3.0미만자는 추후 사정대상에서 제외함.
나. 교내·외의 타 장학금을 받는 자 제외
- 신청기간 : 2001. 5. 16(수) ~ 30(수)**
- 신청장소 : 해당 학업지도교수**
- 신청방법 : 장학금신청서(소정양식)를 작성하여 제출**
- 신청서 평가기준 : 아래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
가. 학업성적 : 60점 나. 사회봉사 : 10점 다. 가정형편 : 20점 라. 학업지도교수평가(학과특성 및 기여도) : 10점
※ 항목별 세부기준은 본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해당 대학 교학과에 문의바람
- 제출서류**
가. 장학금신청서(소정양식)
본교 홈페이지(http://www.dongguk.edu)에서 다운로드 사용
나. 사회봉사인증서
1) 교외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학생은 봉사기관에서 작성한 봉사활동 증명서류를 해당대학 교학과에 제출함.
2) 동국참사람봉사단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학생은 자동 접수처리됨.
다. 지방세(재산세)세무별(미)과세증명서, 기타 가정형편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라. 학업성적은 자동으로 접수처리됨
※ 장학금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장학금을 수혜할 수 없음.

학 생 처

동국 참사람 인증 교육 제5기생 모집

- 동국 참사람 인증 교육이란?**
희망자를 선발하여 1년 간의 별도 교육 프로그램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학생에게 학교가 인증서를 수여하여 보증하는 제도로서, 본인에게는 올바른 가치관과 덕성을 함양하고 사회에서는 동국대학교 학생을 우수한 인재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취업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교는 기업의 국제화·정보화에 발맞추고 21세기 고도 정보화·세계화 사회를 선도할 전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최고의 정예인력을 육성하여 사회에 배출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 교육과정 : 외국어(영어) 교육, 컴퓨터 교육, 인성교육(1주간 공동체 생활), 사회봉사활동**
- 교육기간 : 2001년 9월 ~ 2002년 8월(1년간)**
학기 중 교육 실시
- 모집인원 : 50명**
- 전형일정**
가.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5월 21일(월) ~ 5월 24일(목) 09:00~17:00
나.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 본관 3층 취업지원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면접 일정은 원서접수시 개별통보함)
- 합격자 발표 : 6월 13일(수) 취업지원팀 게시판 공고**
- 응시자격**
가. 현재 3학년 1학기 재학생 또는 2학기 복학 예정자(5학기 등록)로서 평점평균 B+이상인 자
나. 전공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제출서류**
가. 지원서(소정양식) 1부 나. 성적증명서 1부
다. 기타 외국어 성적, 자격증 사본 및 봉사활동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서류전형시 외국어 성적, 컴퓨터 관련 자격증, 봉사활동 실적 등 제출자는 우대함.
- 문의 : 취업지원팀 ☎ 2260-3055**

학 생 처

2학기 휴학·복학·재입학 시행

- 일반 휴학**
가. 접수일자 : 6. 18(월) ~ 6. 20(수), 9. 3(월) ~ 9. 5(수)
나. 휴학 대상자 : 가정형편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수업일수의 2/3이상 출석할 수 없는 학생 또는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
다. 신청서류 : 보호자가 연서한 일반휴학원(소정양식1부), 휴학연장원(휴학 연장서)
라. 유의사항 : 일반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원칙으로 하며, 재학기간 중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1년 추가 연장가능, 일반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제적됨.
- 복학**
가. 접수일자 : 6. 11(월) ~ 6. 13(수), 8. 20(월) ~ 8. 22(수)
나. 복학 대상자 : 일반휴학자로서 휴학기간 만료자 및 한학기만 휴학과 복학할 경우 교과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자, 병사휴학한 자로서 전역자 및 2001년 9월말이전 전역예정자.(10월이후 전역예정자의 복학은 학사지원실과 상의바람)
다. 2001학년도 2학기 복학대상자중 2학년 복학예정자는 반드시 전공결정 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복학시 전공결정신청원을 함께 제출바람.
라. 구비서류
1) 일반복학자 : 복학원서 1부
2) 군복학자 :
· 기전역자 - 복학원서 1부(소정양식), 전역증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 전역예정자 - 복학원서 1부, 전역예정자 각서 1부(소정양식) (※제대 후 반드시 전역증사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재입학**
가. 접수일자 : 6. 11(월) ~ 6. 13(수), 8. 20(월) ~ 8. 22(수)
나. 재입학 대상자 : 퇴학 및 학칙 제53조의 사유로 제적된 자로서 2001년 2학기 재입학 희망자. 단, 학칙 제53조 12호의 학사징계 제적자는 제적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후 가능
다. 구비서류 : 재입학원서 1부
- 복수전공(2000학년도 2학기 2학년 추가분)**
가. 접수일자 : 2001. 8. 20(월) ~ 22(수)
나. 접수대상 : 2001학년도 2학기 3학년 재학생 및 복학생(편입생 포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추후 각 대학 교학과에 배포될 ‘복수전공 이수 신청원 작성서 참고사항’을 받아 보기 바람.

교 무 처

2001학년도 여름 계절학기 공고

- 개설대상 교과목 : 2001학년도 1, 2학기 개설(예정) 교과목 및 계절학기 전과목(사이버 강좌 제외)**
- 수업일정**
가. 2001. 6. 22(금) ~ 2001. 7. 10(화), 월~토요일 16일간
나. 공휴일 제외
- 강의개설 기준인원**
가. 전공 및 교외교과목 : 7명 이상 나. 교양교과목 : 10명 이상
- 수강자격 및 신청절차**
가. 수강자격 : 2001학년도 1학기 재학생
나. 신청방법 : 6학년 이내, 전형일정
- 성적처리**
가. 계절학기 수업에서 취득한 성적은 졸업학점에만 포함되며, 장학학 성발 및 학사징계 등 정규학기 학점취득과는 구별됨
나.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F학점(과락)은 성적증명서에 등재됨.
- 수강신청 및 접수**
가. 기간 : 2001. 5. 22(화) ~ 5. 24(목), 3일간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
(1) 서울캠퍼스 : 교무처 학사지원실(아간 대학생은 아간장교 교학처)
(2) 경주캠퍼스 : 경주캠퍼스 교무처 학사지원실
다. 제출서류 : 계절학기 수강신청서(소정양식) 1매
나. 개설 : 신청서 접수시 수강료 및 부대경비를 납부하여야 함.
(1) 개설 교과목 1학점당(단, P/F 교과목은 시간당) ₩65,000.
(2) 풀트 교과목 신청자는 부대경비 ₩100,000을 납부하여야 함.
마. 수강신청의 경우 수강신청서에 반드시 이수강 표기를 하기 바람.
- 개설 교과목 및 수업시간 확정발표 : 2001. 6. 1(금)**
- 수강신청 결정기간**
가. 기간 : 2001. 6. 4(월) ~ 6. 5(화), 2일간
나. 제한 : 최초 수강신청후 폐강, 시간충족의 사유 발생시에 한하여 정정 가능.
- 단기코스 교과목**
가. 산사의생활 : 사찰(김천 직지사 예정)에서 불교의례와 부처님 가르침, 참선수행 등 2박3일간 실시(교동편은 서울→직지사 렌도만 버스 제공, 귀경은 개별적임)
나. 수영 : 교내 수영장에서 1일 2시간씩 8일간 실시(부대경비 무료).
다. 골프 : 1일 2시간씩 8일간 연습장에서 이론과 실습 병행 실시(부대경비 ₩100,000).
※ 서류전형시 외국어 성적, 컴퓨터 관련 자격증, 봉사활동 실적 등 제출자는 우대함.
- 문의 : 취업지원팀 ☎ 2260-3055**

교 무 처

일본교과서 왜곡과 우리 역사 교육의 과제

논단

국사교육 현실에 대한 냉철한 재검토 필요

일본의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지난해 8월 그들이 만든 교과서를 문부과학성에 검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된 일본 역사교과서 파동은 결국 올해 4월 29일 이 교과서를 비롯한 8종의 역사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문제가 되는 일본 역사교과서는 내외의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2차례 수정을 거쳤지만 그들이 본래 의도했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교과서는 여전히 일본의 침략전쟁을 합리화하거나 미화하는 서술로 일관하고 있다.

뿌리깊은 황국사관에 따른 왜곡

더욱 걱정되는 것은 이러한 역사인식이 일화적이거나 한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뿌리깊은 황국사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교과서의 내용 중에 그들이 주장하듯이 역사해석 상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 중에 사실 자체를 의도적으로 잘못 기록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그 동안 국내 언론은 연일 경쟁하듯이 일본 역사교과서를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냈으며, 관련 학회와 단체들도 일본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을 알리는 많은 집회를 가졌다. 정부도 여러 경로를 통해 항의했으며, 문제의 교과서가 검정에 통과한 후 35개의 재수정안을 공식 전달하기까지 했다. 일본 역사교과서의 잘못을 바로 잡는 일은 지금까지의 한일관계를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뻔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줄 알면서도 재수정을 요구하는 정치적 대응이나 언론을 통한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은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바른 태도가 아니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의 뿌리를 캐보고 그에 합당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의 국사교육 현실을 냉철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최근 일본 역사교과서 파동을 겪으면서 사회에는 국사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우리 국사교과서 제도와 내용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근 세계화의 강풍 속에서 국사 교육이 홀대되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국사 교육은 지금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곧 시행될 고등학교 7차 교육과정에서 근현대사가 선택 과목으로 정해진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 주장에 반대하

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사교과서 제도와 국사교육 내용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일이다.

창의성 저해하는 국정교과서

우리의 국사교과서는 국정교과서 1종뿐이며, 그것도 준거안에 따라 집필하게 되어 있다. 국정교과서 제도는 역사서술을 국가가 독점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과서 제도 아래에서는 다양하고 자율적인 역사서술과 창의성을 키우는 역사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일본 역사교과서가 8종인 것과 우리의 현실을 비교하면 그저 부끄러울 따름이다.

우리 국사교과서에는 '국가와 민족'을 절대적인 선으로 하는 역사인식이 흐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역사의 부끄러운 과거는 축소되거나 은폐되기 일쑤다. 박정희 전대통령을 비롯한 친일인사들과 일부 언론의 친일행적은 국사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일제강점기의 침략과 수탈만 강조하는 일제시대의 서술과 우리의 어두운 정치사를 애써 감추고 남과 북의 차별을



박 종 진
숙명여대 한국사학과 교수

부추기며 베트남에서의 우리의 잘못을 기록하지 않는 현대사는 분명 다시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역사 서술은 우리가 현재 문제삼고 있는 일본 역사교과서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일본 역사교과서를 수정하라는 우리의 요구에 대해 한국의 역사교과서를 고치라는 일본 일부 언론의 방자함을 접하면서 우리가 묵묵부답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잘못된 일본 역사교과서를 비판하고 바로잡는 일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의 불행한 과거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올바른 한일관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 국사교과서를 비판하고 고치는 일에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가와 민족'의 잘못과 범죄까지 사실대로 가르칠 수 있을 때에만 잘못을 넘어서 '국가와 민족'의 밝은 역사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설

대학문화 몇 살린 참신한 대동제로

동악 곳곳에서 벌어지는 거리전. 여기저기 들리는 음악소리와 학생들의 웃음 소리. 5월이던 동악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대학의 가장 큰 축제' 대동제가 이를 앞으로 다가왔다.

과거 8, 90년대의 대동제가 학생들에게 암울한 시대에서 좌절과 분노를 토로하고 정치적 투쟁을 위한 공간이었다면 오늘날 대동제는 학생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대학 문화의 성격이 짙다. 모든 동국인들이 단합의 장으로서 공동체 문화를 느끼고 즐기는 것이 대동제의 진정한 의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의 대동제를 뒤돌아보면 대학 축제만이 가지는 고유함이 사라진 듯하다. 기업들의 제품 홍보 이벤트와 저녁이 되면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주점들은 학내 밖의 상업주의를 그대로 재현해왔다. 특히 동아 곳곳이 먹다 남은 술병들과 쓰레기들로 더럽혀지고 몇몇 학생들은 싸우거나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 축제기간의 분위기가 근심스럽기까지 하다.

비단 잘못된 술문화 뿐만 아니라 우려되는 것은 행사 내용 면에서 예전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점이다. 이번 대동제 역시 총학생회와 학부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단과대들이 맥주 빨리마시기, 가요제, 노예팅, 물풍선 던지기 등 지난해와 같거나 유사한 행사들을 반복한다. 점차 학생들의 개인주의가 심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행사내용의 참신성 부족은 효용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힘들다.

이제 대학축제도 새로운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학생들을 공동체 문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동시에 축제의 의미를 살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동국인이 함께하는 대동(大同)의 장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인재'는 물러가라

얼마전 경기도 광주시 한 기숙형 대입전문학원에서 일어난 화재사건은 여덟 명의 소중한 젊음을 빼앗은 '인재'였다. 그들은 최장살 아래에서 5월의 싱그러움 햇살 대신 유독성 연기를 마신 채 죽어가야 했다. 이들은 오전 6시 30분에 일어나 하루 9교시 수업을 받고, 밤 11시 50분까지 자습을 하면서 바깥세상과 철저히 단절을 지내왔다. 그러나 활발한 기숙학원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대학생이 되는 꿈'을 키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휴게실 소파에서 일어난 어처구니없는 작은 불씨가 그들의 꿈을 무참히 짓밟아 버리고 말았다.

지난 17일 밤 10시경 경주캠퍼스 생활관 뒤편 야산에서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유감스럽게도 광주 기숙학원 화재사건이 발생한 지 딱 24시간만에 벌어진 일이다. 이 날 밤하늘에 쏘아 올린 불꽃은 오픈하우스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켰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빛나던 몇 갈래의 불빛도 잠시 뿐이었다. 무리악어 가든 생활관 축제는 작은 불씨 하나로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생활관 화재사건은 대학에 들어오기 위해 발버둥치던 그들의 희생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다.

물론 자유와 낭만이 넘치는 대학에서 축제를 즐기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요란스럽게 불꽃을 터뜨리는 향락적이고 소비적인 축제 분위기는 우리가 벗어 던져야 할 못난 모습이기도 하다.

광주 기숙학원 참사는 당국의 관리 소홀과 관련 법령 미비가 빚어낸 결과라고 한다. 생활관 화재사건 역시 축제를 준비한 학생들의 부주의와 태만이 낳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생활관 지도와 소방안전 점검이 소홀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민주유공자법 무산과 5.18 유가족 기념행사 불참

정쟁으로 빚어진 '주인없는 잔치'

유공자법 제정으로 명예회복 이뤄져야

국가 전복을 기도하던 '폭도'에서 민주화를 위해 죽어간 '열사'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왜곡했던 시각은 이제 거의 사라졌지만 진정한 자리매김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남은 듯 하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제21주년 기념식이 행사의 주인이 되어야 할 희생자 유가족이 없는 가운데 치러졌다. 5월 광주에 대해 숨죽이고 있어야 했던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볼 수 없던 풍경이다.

같은 시간 희생자 유가족들을 볼 수 있던 곳은 광주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5월단체협의회 회원들은 기념식이 열린 시간 국회의사당 앞에서 별도의 추모식을 진행했다.

추모식에서 희생자 유가족들은 "민주유공자법은 대통령이 약속한 사안이지만 지난 4년 동안 정파간 이해 때문에 표류해왔다"며 5.18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유공자법은 5.18 관련자들을 4.19혁명 희생자와 동등하게 대우하고 교육과 취업 등 실질적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법이 제정되면 5.18 묘지는 국립묘지로 승격된다.

5.18 기념재단 운영규 이사장은 "유공자법은 국가로부터 5.18에 진정한 민주화 운동임을 인정받는 것으로 유공자들의 명예회복이 이뤄지게 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지난 15대 국회 때 72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했지만 아직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제출한 관련 법안도 한나라당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지 못한 한국전쟁과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과 불균형이 생긴다면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끝내 무산됐다.

야당 주장대로 포괄적인 유공자 예수가 이뤄질 경우 수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실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형편이다. 이에 야당 주장이 '비판을 위한 비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날 22일 김용갑 의원을 비롯한 일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특정 정당이 집권했다 해서 그 정당 지지지역의 이해관계가 국가원칙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민주유공자법의 국회통과를 반대해 5.18 희



생자 유가족들을 더욱 자극했다. 5.18 민주화운동 유족회 김성수 대표는 "지난날 흘러야 했던 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요구를 지역 이기주의에서 나온 편협한 발상으로 몰아붙이는 의도는 무엇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이와는 전혀 무관한 국정조사 등 여러 현안에 대해 한나라당과 주고받기식 절충을 시도해 5.18 민주화운동을 '정치 흥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그저 돈으로 보상 받을 정도의 역사가 아니다. 5.18 민주화운동 제단체협의회 정책회 의장은 "우리가 단호히 물질적 보상을 바라고 민주유공자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민주유공자법을 통한 고인의 명예회복 없이는 매년 열리는 기념식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 말했다.

그들은 5.18 민주화운동이 교착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우정현 기자
caesar2000@dongguk.edu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 | | | |
|----------|-----|-----------|-------------------------------|
| 발행인 | 송석구 | 인터넷 동대신문 | http://dgupress.dongguk.ac.kr |
| 편집인 겸 주간 | 김호성 | 인터넷 동국대학교 | http://www.dongguk.edu |
| 부주장 | 백승석 | 이메일 ID | dgupress 나우누리 ID 동대신문 |
| 편집국장 | 박상관 | 구독문의 |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
| 편집장 | 김은선 | | |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658 팩스 (054)770-2657

5.16 군사쿠데타 40주년 학술 토론회

신화 속 허구에서 벗어나 박정희 바로보기



지난 14일 성공회 대성당 프란시스코홀에서 '5.16 군사쿠데타 40주년 학술 토론회'가 열렸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3시 한강 인도교 위에서의 총성은 한국 정치지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한국의 정치·사회·경제·문화 모든 분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5.16쿠데타는 어느덧 40주년을 맞이했다.

최근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한 향수, 관련 서적 그리고 박정희 전대통령 기념관 건립 찬반논란 등 '5.16'을 주도한 박 전대통령을 둘러싼 평가가 분분하다.

장면정부를 비정상적으로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은 군인, 가난과 기아의 생존문제를 해결한 경제대통령, 독립군 학살자였던 만주의 일본군장교 다카기 마사오, 초유의 유신체제로 독재자가 된 박정희.

지난 14일 성공회 대성당 프란시스코홀에서 열린 학술토론회는 이처럼 수없이 많은 수식어로 평가되고 있는 박정희를 제대로 알고자 박정희가 집권한 당시의 체제를 평가하면서 박정희 신드롬 극복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제발표는 사회를 맡은 조희연(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및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박정희·박정희체제 평가'를 테마로 발표했다. 발제자들은 박정희의 과거와 집권당시 정책의 문제점과 집권

18년 간 우리사회에 뿌리깊게 심어놓은 사회적 요소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 본교 주종환 명예교수의 기초발표를 시작으로 가톨릭대 안병욱(국사학) 교수, 정삼모 MBC 통일연구소 연구위원, 성공회대 김동춘(사회과학부) 교수, 국민대 조원희(경제학) 교수 등이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평가와 극복방안에서 약간의 차이점을 보였지만 박정희체제 극복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발표문

한국의 민주주의와 박정희체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정해구 교수)
=민주주의 발전과정은 영국과 프랑스 등 선발 자본주의국가의 계급타협 민주주의와 독일과 이탈리아 등 후발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지배계급과 국가 연합 민주주의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후발 자본주의 국가에 가깝다. 국가가 사회지배계급과 연합해 급속한 자본주의 산업화를 추진했다. 때문에 단시일 내에 근대화가 이뤄졌지만 강력한 반공국가의 존재와 국가 지원에 의한 경제 성장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보수

적이고 제한적인 흐름이 됐다. 5.16쿠데타와 박정희체제는 이같은 흐름속에서도 4.19를 통해 꽃피운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발전의 싹을 잘라버렸다고 할 수 있다.

박정희식 경제성장의 공과
(인하대 경제학부 김대환 교수)
=박정희 시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신화와 주술에 불과하다. 흔히 박정희 시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말한다. 그러나 박정희식 경제개발은 외형적 성장만을 추구하고 대기업 위주의 불균형 성장을 고착화시켰다.

또한 대외 종속적 경제성장으로 세계 자본주의에 깊이 빠져들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심화시켰다.

이러한 박정희식 경제성장의 문제점은 IMF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 그간 쌓아 올린 경제성장 자체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제는 박정희의 신화로부터 깨어나 그 시대에 만들어진 경제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해야 한다.

박정희정권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본교 사회학과 강정구 교수)

=박정희는 집권 초기 반공제일주의와 대북대결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이는 박정희의 좌익활동과 권력정당성 문제, 친일행위 등 개인적 행적문제의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박정희의 통일정책은 '선건설 후통일' 정책이 되었다. 이는 일체의 통일 논의나 운동을 금기화하고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또한 외부 냉전체제의 이완에도 불구하고 긴장 완화보다는 오히려 유신독재체제를 구축해 정권안보를 강화했다. 박정희정권은 남북대결구도를 심화시켜 민족통일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인간 박정희 평가, '신화 속의 허구'에서 '역사 속의 진실'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조현연 교수)
=박정희를 둘러싼 신화 속의 허구는 '항일 독립군', '청렴한 서민형 정치 지도자' 등이 있다. 경제위기가 다가오면서 박정희 시대의 향수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박정희는 기념이나 추앙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다. 일제사관학교에서 지식을 쌓고 일본군 장교로 활동한 경력은 박정희의 친일행각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정인숙 여인 살인사건'과 공정동 안기는 그의 청렴하고 서민적인 이미지를 단박에 뒤집어준다.

우리사회 새로운 시대의 지평을 열기 위해서 박정희는 반드시 청산하고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역사의 기억들은 단순히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화되고 물질화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에 침투하기 때문이다.

▲종합토론

=본교 주종환 명예교수가 기초발표를 통해 "박정희·박정희체제는 민족·민중·민주 연합으로 극복해야 한다"며 현 사회 운동 세력들이 단결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주요 쟁점은 '박정희체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독재를 단행했는가'였다. 성공회대 김동춘(사회과학부) 교수는 "자본주의에서 근대화가 불가피했고 이때 경제정책 선택이 구조적으로 제약 받았다"는 것을 감안해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본교 강정구(사회학) 교수는 "5.16쿠데타는 4.19 흐름에서 어쩔 수 없는 사건이 아니었다"며 "민주주의와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정리=사회부 society@dongguk.edu



박정희 기념관 반대 국민연대는 삼암동 부지에서 기념관 건립 반대집회를 벌인 뒤 '독립군 위령탑 건립 반대 국민연대' 팻말을 설치했다.

뒤바뀐 독립군과 친일파 대우

박정희 전대통령의 근대화 업적을 평가하고 동서 화합을 이뤄보겠다는 취지로 지난 99년 현직 대통령이 나서서 기념관을 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념관 건립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5.16 쿠데타 발발 40주년을 맞아 민주노총, 민족문제연구소, 전국연합, 참여연대 등 2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박정희 기념관반대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는 지난 16일 서울 삼암동 박정희 기념관 건립 예정지에서 '박정희 청산' 촉구 국민대회를 열었다.

홍근수 목사, 본교 주종환 명예교수 등 집회 참가자들은 "자발적으로 일본군 장교가 돼 항일운동가들과 싸웠고 민주주의를 말할한 사람을 위해 귀중한 국민세금을 기증한 것을 기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에 지원계획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연대는 "삼암동 26번지에는 박정희 기념관 대신 민족투사들과 독립유공자들의 위령탑이 세워져야 한다"며 "독립군 위령탑 건립터라고 적힌 대형 팻말을 설치했다.

이관복 공동대표는 "독립군과 의병을 기리는 기념관이 하나도 없는 실정에서 이들을 위한 기념관을 짓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집회의 마지막 순서를 진행하려는 순간 경찰측이 '화형식은 불법'이라며 박정희 허수아비를 압수하는 등 허가된 집회를 방해하기도 했다.

이때는 국민연대의 강력한 항의에 1시간정도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이 박정희 허수아비를 돌려주고 화형식을 진행했다.

국민연대 공동대책위원장인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박 전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작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념사업에 앞서 청산작업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평민당 총재시절인 89년 월간 신동아에서 "박정희를 미화하는 자가 무엇이냐? 역사와 국민은 독재자와 그의 잔재를 다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누구든 청와대에 입성하면 했던 말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인지.

김윤미 기자 kiza41@dongguk.edu



군부정권의 잔혹한 총칼앞에 누이와 형제가 스러진지도 어언 21년. 하지만 그들 가슴에 맺힌 피멍이 사라질 날은 언제일런지. 지난 18일 '5.18 민중항쟁단체협의회'는 '5.18 유공자에우법' 제정지연에 항의하며 민중항쟁추모제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었다. 유가족들은 21년전 오늘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추모제 내내 눈시울을 붉혔다.

김현정 기자 tellme@dongguk.edu

동약론

특강아! 놀자



"00박사 특별강연이래. 한번 가볼까?"
"괜히 갔다가 잠이나 자고 오려고."

요즘 들어 동약 곳곳에서 여러분아의 인사들을 초청한 특강이 다양한 형태로 열리고 있다.

하지만 '명사초청 대 특강' 등 근사한 문구로 장식한 대자보와 플래카드를 학생들의 눈길만 끌 뿐 발길까지 이끌기에는 무리인 듯하다.

"뭘 소린지 도통 모르겠다. 지루해."
"대학원생이나 교수들 대상인가봐?"
한 특강에 참석한 두 학생이 고개를 가우뚱거리다.

초청된 국내외 석학들이 전문 용어를 남발하며 자신들의 연구내용을 소개하는 내용이 그들에게는 못내 지루하고 어

려웠던 모양이다. 대부분의 좌석을 가득 메우고 진지하게 경청하는 대학원생, 교수와는 대조적으로 소수만이 참석한 일반학생들은 대부분 졸거나 딴 짓을 할 뿐이었다.

"학생여러분 강연도중 나가는 일을 삼가 해주십시오."

결국 사회자의 부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학생들은 하나 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현재 학내에서 열리는 세미나의 대부분은 학문적 대의명분을 높이기 위한 것이 많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특강을 어렵고 멀게만 느끼는 것이 당연한 일인 지도 모른다.

기초학문의 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

리가 높다. 하루에 1시간 이상 공부하는 대학생이 드물다고 한다.

학문의 상아탑이라 불리던 대학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특강을 적극 활용해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제는 학생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

몇몇 교수들의 연구 발표회장이 아닌,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배움의 장이 필요하다.

그렇아 학생들의 배움의 폭을 넓혀주고자 했던 특강의 본래 의미가 되살아날 것이다.

앞으로 학생들이 정말 원하는 특강이 동약 곳곳에서 열리기를 기대해 본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구상과 추상이 조화된 '하모니즘' 창조

유형과 무형 등 이질적 요소 아우르는 독창적 예술 세계

지난 1992년 1월 19일은 당시 72세였던 노화와 서른 살 먹은 여성이 42년의 나이차이를 극복하고 결혼함으로써 화제를 모은 날로 기억되고 있다. 그 결혼식의 신랑이 바로 화가 김흥수였다. 그로부터 10여년의 세월이 지난 현재까지 여든 셋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불구하고 왕성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흥수는 우리 나라 미술계의 산 증인이며, 동시에 자신만의 독자적인 예술세계로 일가를 이룬 화단의 거목으로 기억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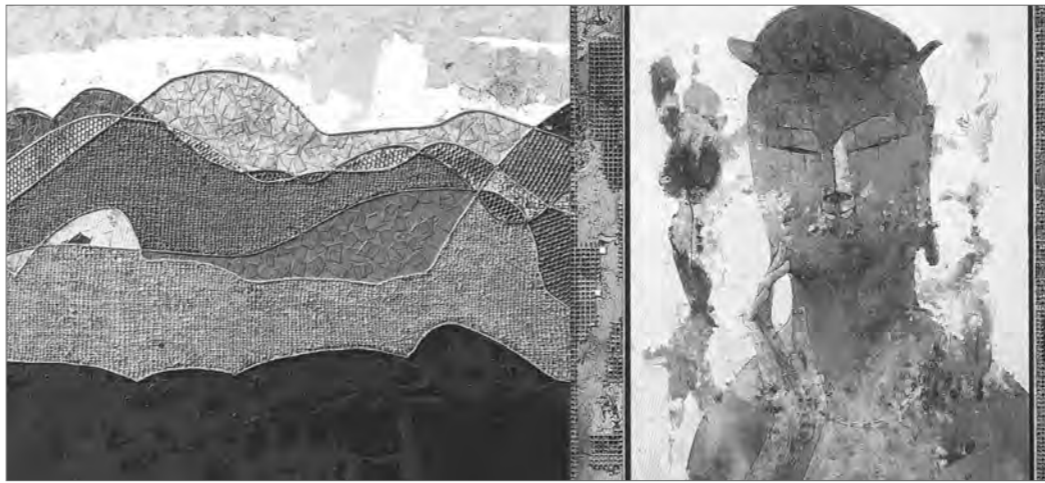
1919년 평안남도 함흥에서 출생한 그는 식민지 시대 일본으로 유학해 동경에 유학파에 입학했으나 학도병 징집을 거부해 졸업하지 못한 채 귀국했다. 이후 45년이 지난 1985년 뒤늦은 졸업장을 받음으로써 또 한번 화제를 낳기도 했다. 한편 그는 해방이후 프랑스로 유학한 한국화가 1세대이며, 70년대 미국에서 교수로 활동하기도 한 행운아(?)이기도 하다. 1955년부터 6년간의 파리 생활과 1967년부터 10년간의 미국생활은 작가에게 국제적인 안목과 세계미술사를 향해 당당히 자신의 작품세계를 드러낼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 밑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김흥수의 예술세계를 논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가 '하모니즘(Harmonism)'이라고 칭한 '조형주의 운동의 창시자로 세계미술사에 기록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활동하던 1977년 7월 7일 '조형주의 회화'라는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탄생시킨 '하모니즘'은 구상과 추상을 한 화면에

배치함으로써 이질적인 세계관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이상적인 조형언어로 요약된다. 현실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추상의 세계를 '음(陰)·부정'으로, 눈에 보이는 구상세계를 '양(陽)·긍정'으로 각각 설정하고 이것이 하나의 세계로 어울리게 될 때 완전해 접근하게 된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예를 들어 작가는 화면 한쪽에 동양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한복 입은 여인이나 누드, 부처, 석탑 등의 소재를 비교적 사실적으로 그리고 이와 대칭되는 다른 한 화면엔 기하학적인 모티브와 원, 선 등으로 구성된 추상적인 모티프를 결합시킨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하모니즘'을 표방하는 김흥수의 작품은 단순한 두 개의 다른 주제를 각각 다른 화면에 그려 조화시킨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를 두 개의 이상의 화면에 조화시키는 회화적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화가 김흥수는 한 작품 속에서 완벽한 조화를 위해 구상과 추상이라는 표피적·형식적 대립을 극복하고 유인과 필연, 유형과 무형, 동양과 서양과 같은 상호 이질적인 요소와 관련을 조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예술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작가의 이런 입장이 처음부터 세계미술사에서 인정받고 독창적인 화풍으로 평가받은 것은 아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김흥수가 '조형주의'를 선언한 시점은 1977년이었으나 이후 1981년 미국인 화가 데이비드 샬레는 추상과 구상을



하모니즘의 창시자 김흥수의 산·1983(왼쪽), 오(梧)·1977(오른쪽)

병치시킨 두 쪽으로 된 그림으로 미국화단에 선 풍적인 바람을 일으켰다. 당시 샬레의 작품은 구상적인 화면 속에 완전 추상을 결합시킨 새로운 개념의 회화로 인정받아 많은 작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그는 일약 세계 유명작가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프랑스의 저명한 미술평론가 피에르 레스타니는 김흥수의 작업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조형주의'의 창시자로 알려진 샬레보다 4년이나 앞서 발표된 동일 경향의 작품이라고 인정하고 그 동안의 미술사와 학설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990년 파리 록상브르 미술관에서 김흥수의 초대전을 주선했고, 이 전시가 성공적으로 개최됨으로써 작가의 예술

세계는 비로소 세계미술사에서 재평가받게 된 것이다.

소위 말하는 예술·예술가·예술작품·예술계에 대한 절대적 가치 판단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화가 김흥수 개인의 성공과 그의 예술세계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기로 한다. 단지 거칠게 살펴본 한 원로 화가의 예술여정을 통해 우리 나라의 현대미술이 겪어온 태생적 한계와 끝없이 주변을 맴돌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다시 한번 되돌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할뿐이다.

이준희
월간미술 기자

고수동정



▲강정규 (사회학)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제2회 세계한민족포럼'에 참가.



▲김준태 (멀티미디어공학)
=오늘부터 25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oft Computing'에 참가.



▲이혜은 (지리교육)
=다음달 1일부터 9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Unbanizing World and UN Human Habitat II'에 참석 예정.



▲안재섭 (지리교육)
=다음달 1일부터 9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East Asia Network' 학술회의 참석.

대학원 기획 특강 - 생명공학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과학 기술에 대한 막연한 환상은 금물

대학원 총학생회(회장=이주환·사학박사 과정 1학기)는 지난 11일부터 '인간과 기술'이라는 주제로 2001 대학원 봄 기획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총 6회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특강 가운데 지난 18일 '생명공학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강은 최근 광우병, 인간복제, 유전자 조작 등이 관심을 모으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끌었다.

강연자는 인천 도시생태·환경연구소의 박병상 소장으로 이번 강연을 통해 현재 생명공학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과 식량, 의료,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모든 '생명'은 지역 특유의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을 갖는데 복제기술은 이러한 다양성을 무시하고 오직 한 가지 형태의 '생명'만을 만든다. 복제된 생명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 환경이 변하게 되면 이러한 생명체들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멸하게 된다. 그것이 동물이나 배아일 경우, 식물일 때보다 한층 더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다양성과 순환을 근간으로 하는 생태계에

서 복제된 생물은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박병상 소장은 "질병 치료를 위해 배아복제를 할 경우, 배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따라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암이나 치매에 대한 연구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아연구는 성공여부를 예측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유전자 조작 식품이 가지는 위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콩이나 토마토, 한우 등 유전자를 변형하여 만든 음식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불확실성, 불안정성이 존재하는 생명공학으로 만든 식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다. 그는 "현재 이상이 없다고 안심하기보다 안전할 때까지 조심하는 '예방'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소장은 "생명공학과 같은 기술에 의존하는 삶이 아닌 여유를 가지고 생태적 삶을 살아야 생명공학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강연을 정리했다.

엽태규 기자
snail11@dongguk.edu

학술단신

불교문화 초청 특강

불교대학원(원장=서윤길·불교학)은 오는 22일과 29일 오후 5시 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불교문화 초청특강을 개최한다. 서윤길 권석만(심리학) 교수를 초청해 열리는 이번 특강은 '인지치료의 관점에서 본 불교'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성공적인 인간의 삶' 강연

경영대학원(원장=조희영·경영학)은 오는 22일 문화관 예술극장에서 경영환경특강을 실시한다. 이번 특강은 '성공적인 인간의 삶'이라는 주제로 송석구(철학) 분교 총장이 강연할 예정이다.

환경공학 경시대회

광주과학기술원은 오는 7월 21일 제1회 환경공학 경시대회를 주최한다. 이공계 대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이번 경시대회는 환경공학일반, 유체역학 등 5과목에서 총 10문제를 출제하며, 그 가운데 4문제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치러진다. 참가신청은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www.kjst.ac.kr)를 통해 사전등록을 한 후 지원서를 교부 받아 오는 31일까지 우편으로 등록하면 된다.



민태진 교수의
과학이야기 (4)

혈액형의 발견

혈액은 혈관을 따라 온몸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일을 담당한다. 이러한 혈액이 끊임없이 순환할 수 있도록 펌프역할을 하는 것이 심장이다.

혈액형은 혈액 중 적혈구에 존재하는 특정한 항원의 유무 또는 존재하는 이들 항원의 조합에 따라 혈액을 분류하는 방식이다.

주로 당 등으로 구성된 항원은 특정한 환경에서 이에 대응하는 항체의 형성을 자극하는 물질이며, 항체는 특정한 항원과 반응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이 혈액형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과학자 란트슈타이너에 의해 발견되었다. 그가 빈대학에서 의학공부를 마치고, 그곳에 있는 병리학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을 때 어떤 사람의 혈액에 다른 사람의 혈액을 혼합하면 적혈구의 덩어리가 생성됨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이것이 결핵 등의 질병과 관련된 것으로 알았으나, 그 후 질병과는 무관하며, 우리 인간의 혈액형에는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적혈구의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을 응집반응이라 하는데 이 응집이 생기는 것은 적혈구의 막에 A형 항원을 가지는 혈액이 그 혈청 내에 항B라는 항체를, 적혈구의 막에 B형 항원을 가지는 혈액은 그 혈청 내에 항A라는 항체를 각각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혈액형이 다른 사람끼리의 수혈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처럼 항원물질의 종류에 따라 사람의 혈액형을 A, B 및 O형으로 분류하는 것을 ABO식 혈액형이라 하며, 사람의 혈액은 적어도 3가지 이상의 주요 혈액형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그 다음 해에 A·B항원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AB의 항체는 가지고 있지 않은 혈액형 AB형을 발견하였다. 그 후 뉴욕 록펠러 의학연구소의 초창으로 미국에 간 그는 인간의 혈액형에 대한 두 가지 독립된 분류법, 즉 M 및 N항원의 유무에 따라 분류하는 M과 N식을 발견하였다.

1940년 그는 위너와 함께 리서스(Rh)라고 하는 혈액 인자도 발견하였는데, Rh는 그것이 발견된 원숭이 종의 이름을 딴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피속에 Rh라고 하는 표지 물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음성 Rh형의 혈액을 가진 어머니와 양성 Rh형 혈액을 가진 아버지 사이에서 생긴 태아는 50%정도가 양성 Rh형 혈액을 가지게 된다.

이때 아기의 태아세포가 어머니의 순환기관에 들어가면 산모는 Rh표지 물질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를 가지는데, 이 항체는 아기의 양성 Rh형 혈액 중의 적혈구를 파괴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중국에는 아기가 빈혈과 황달에 걸려 사산이나 유산함을 발견하였다. 이 발견으로 음성 Rh형 혈액을 산모에게 수혈함으로써 어린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로써 그의 연구는 1930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되었고, 수혈이나 조직의 이식과 같은 수술의 혁명을 일으켜 수많은 생명을 구해하였다. 또한 그의 연구는 특정한 유전자를 통하여 혈액형이 유전된다는 사실을 밝혀 인류유전학이나 인류학 연구에 유용한 수단을 제공하였다. 또한 친자확인이나 살인사건의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를 제공하는 법의학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

함께 하는 문화로 통일조국 앞당기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지난 수십년 동안 갈라진 조국에서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온 우리민족을 달래준 것은 통일에 대한 ‘희망’이었다. 이러한 통일의 열원은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더욱 후끈하게 달아올랐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통일의 길목에 한 걸음 들어섰음을 의심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남북 사이에 머물고 있는 이상기류는 그동안 걸어온 ‘통일’로의 여정을 주춤하게 만든다. ‘남북 장관급 회담’이 결렬되고 ‘탁구 단일팀’이 무산된 것을 비롯해 여러 부분에서 삐걱거리는 모습이다. 이러한 최근 정세는 지난해 남북 화해무드가 던져준 통일의 희망에 부풀어 있던 통일운동가들의 사기를 꺾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조국 통일을 위한 마음가짐을 다잡고 우리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실천하는 데 신경을 집중해야 한다.

한민족 한핏줄로 살아온 반만년 가까운 세월을, 세계 강대국들이 인위적으로 그어 놓은 ‘삼팔선’ 남북에서 나뉘어 살아온 반백년에 비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였고, 앞으로도 하나일 것이다. 단지 잠깐 떨어져 서로를 그리워하며 현재를 살고 있을 뿐이다. 그만큼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통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며 풀어야만 하는 숙제이다.

그러나 ‘통일’이라는 결과에 앞서 ‘통일로 가는 과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통일에 대한 준비없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통일과 남북 모두 통일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과정인 선행된 후의 통일은 많이 다를 것이다. 그러면 남북이 거부감 없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통일의 준비과정은 과연 무엇일까. 해답은 그리 어렵지 않다. 바로 문화를 통해 남북이 거부감 없는 통일을 준비할 수 있다.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려는 활동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해 낸 물질적·정신적 소득의 총칭. 특히 학문·예술·종교·도덕 등 인간의 내적 정신 활동의 소산을 말함’ 이라고 ‘문화’를 정의한 ‘국어대사전’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상을 실현하려는 과정이자 그 과정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의 생활 자체가 문화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며, 삶을 영유하는 것 역시 문화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 만큼 우리 삶에서 ‘문화’를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남북이 통일됐을 때 가장 먼저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문화일 것이며, 통일된 조국에서 하나된 민족이 피부로 직접 느끼며 갈등할 수 있는 부분도 바로 ‘문화적 이질감’일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남북이 함께 공유할 수 있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문화가 통일 전에 형성되어 있거나, 혹은 남북을 바로 알아갈 수 있는 매개체로서 ‘문화’가 작용한다면 통일을 좀 더 앞당길 수 있다는 말도 된다. 따라서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문화, 즉 ‘통일을 이루기 위한 문화’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통일을 이루기 위한 문화’에 대해 그 어디에서도 정의한 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문화를 ‘통일문화’라 정의하며 그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려 한다.

앞으로 ‘통일문화’는 우리 조국의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가장 큰 기대주이자 희망이기 때문이다.

기획부 imperial@dongguk.edu



부락문화 체험기

‘북녘’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김진/사진

북녘에서 확인한 우리 민족문화

북녘의 가극, 교예, 영화, 수예 등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평평이 나 있다. 지금도 ‘피바다 가극단’이나 ‘평양교예단’ 등은 세계 각 국의 초청에 불려 다니며 극찬을 받고 있다.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문화적 충격을 받은 것은 전문적 문예인들에게서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서였다. 전 인민이 자연스럽게 시조를 읊조리고, 시를 짓고, 어느 장소에 가는 그 곳의 주제에 맞게 춤추고 노래할 수 있다고 한다.

실제 탁아소의 세살짜리 어린아이들이 악기를 다루며 공연을 하는 모습, 인민학교 어린이들이 소년화생공전에서 문예실력을 키우는 모습, 노동자들이 인민문화공전에서 갈고 닦은 실력으로 공연을 하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 북녘 동포형제들은 농사를 지으면서도 노래를 하고, 노동을 하면서도 춤을 추었던, 밭을 누릴 줄 알고 풍류를 즐길 줄 알았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계승,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능력을 한데 모아 단체조, 집단 카드섹션 등 공체조 문화의 진수를 보여 주기도 하였다. 전 세계인이 놀라워하는 이것들이 가능한 것은 이들이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일상적으로 키우고 있는 문화적 능력이다.

‘99통일대축전 10차 범민족대회’에서 보여주었던 그들의 화려하고 충격적인 모습은 지금도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또한, 1999년 26일간 북녘에 체류하면서 보았던 그들의 문화, 그들의 모습, 그들의 생활은 한민족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기에 충분했고, 미국, 일본에 의해 잠식당해 미국화, 일본화 되어 가는 남녘의 문화, 남녘의 생활을 깊이깊이 반성하게 하였다. 또 한편으로 북녘 동포형제들의 자부심과 통일에 대한 신심에 남녘 동포형제들의 열정이 합쳐진다면 그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것이 펼쳐지겠는가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우리 민족의 아름다움, 우리 민족의 위대함이 온전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남과 북이 하나되어야 한다.

분명 나는 북녘의 문화, 북녘의 모습 속에서 우리 민족의 위대함, 통일된 조국의 아름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형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조직국장

평양은 하나의 커다란 박물관

주체사상기념탑, 개신문, 혁명열사릉, 조선혁명박물관, 미술박물관, 역사박물관, 3대혁명 기념관 등을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역사를 기록하고 민족사를 증명하는 곳들로 가득 찬 평양은 말 그대로 하나의 커다란 ‘박물관 도시’인 듯 했다. 대동강과 보통강이 흐르고 모란봉과 만경봉 등 아름다운 봉우리를 품어 안은 세계에서 가장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다는 평양은 아름답고 유서 깊은 박물관과 지체인 것이다. 건물과 시설의 역사도 몇 년 후에 무너지거나 고치는 일 없이 몇 십 년씩 되곤 했다. 또한, 건물과 시설 하나하나에 역사적 의미를 담아서 건설하였다. 즉, 충수의 의미, 사용된 벽돌 수의 의미, 그려진 그림의 의미, 그 장소에 건설한 의미 등 모든 것이 민족의 역사, 그리고 미래와 무관치 않았다.

특히, 가장 감동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민족적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건물을 하나 지어도 민족의 우수성을 드러냈고, 그림을 하나 그려도 강한 자부심을 표현하였다. 도시 곳곳에서 북녘 형제들의 자신감, 자부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은 ‘반공’을 신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어린 시절 반공교육에 길들여진 29세대들에게 ‘이승복’은 참으로 대단한 어린이였다. 북한을 선전하는 공산당에게 “공산당이 싫다”고 당당하게 말하다가 비참하게 죽었다는 이승복은 어린 29세대의 눈에 가히 대안해 보였다.

29세대들은 어린 시절 투철한 반공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반공포스터 그리기 대회는 국민학교(29세대는 ‘국민학교’를 다녔다) 6년 내내 빠질 수 없는 필수 코스였다. 당시 어린 29세대의 스케치북에 붙 달린 공산당이 등장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그들의 손에는 항상 총칼이 들려있었다.

가장 순수한 나이인 국민학교 시절의 29세대가 있을 수 없는 또 하나는 바로 배라다. 학교 운동장 한편에서 혹은 친구들과 놀러갔던 놀이터 등지에서 발견되곤 했던 배라는 ‘파출소에 가져다주면 학용품과 바꿔주는 무엇’이기도 했다. 물론 배라의 내용은 ‘문화읽기:배라에서 사이버문화까지’라는 책에서 김진송 씨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적에게 투여되는 비밀 병기’가 아니라 피자의 우리편에게 투여되는 정책적 슬로건의 가장 강력한 장치적 글들로 가득 차 있었다.

29세대가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반공교육은 국민학교 시절보다 많이 줄었다. 그러나 학교 내에서는 더 교육보다는 생활 곳곳에서 느끼는 반공교육들이 더 많았다. 지하철 곳곳에 붙어 있던 크고 작은 크기의 반공포스터, 전쟁에 대비해 예행연습을 한다는 민방위 훈련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한 29세대들, 영화 ‘쉬리’ 속에서 그려지는 북한군의 모습을 통해 지금도 여전히 반공교육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29세대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받아온 반공교육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남북화해 분위기로 남북정상이 만나 통일에 대해 이야기한 현재에도 이러한 반공교육은 알게 모르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2000년 8월 이승복 기념관을 다녀왔다는 한 초등 학교 학생은 그 소감문에서 나라에서 이승복에게 훈장을 수여했는데 그 이유가 “북한군의 선전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고 들은 바를 서술하고 있다. 75년 이승복 반공관에서 82년 개관한 이승복 기념관, 매년 열리는 이승복 추모제는 국민들에게 여전히 반공교육을 지속하려는 한 단편이다.

한때 ‘이승복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되었던 것에 비해보아도 명확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혹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해도 기념관까지 지어지며 이승복이 죽을 당시의 정황에 대해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외에도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는 부분에서 반공교육은 계속되고 있다. 지하철 한편에 붙어 있는 ‘간첩신고’ 포스터 등은 우리를 무의식 중에 반공으로 몰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정치적 사상은 우리 스스로 정립하고 깨우쳐 나가야 한다. 더이상 외부의 잣대에 휘둘리는 반공 보다는 스스로 판단하고 정립해 나가는 스스로의 잣대가 중요한 것이다. 혹시 나는 반공교육에 무의식적으로 동화되어 더욱 중요한 ‘민족 통일’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이다.

표은영 기자 psik20@dongguk.edu

쫄선, 03, 안티창 3인의 가상좌담회

“반통일! 우리에게 말겨!”

통일로 가는 길은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험난하기만 하다. 남북 모두 하나되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지만 보이지 않는 ‘숨’은 계속적으로 그 길에 장애물을 만들고 있다. 한반도를 냉전기류에 휩쓸리게 하는 세력들의 가상좌담회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고자 한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세 분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시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선 서로 인사들 나누시죠.

쫄선 : 잘들 계셨는가. 03이는 한가한듯 싶더니 요즘 여러사람 만나느라 바쁜 것 같더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면서) IMF다 뭐다 한창 기가 죽었는데, 요즘은 그때보다 못살겠다는 소릴 들으니 기분이 좋지 않은가?

03 : 쓸데 없는 소리! (작은 눈을 치켜 뜨며) 안 그래도 내가 니한테 따질 게 좀 있다. 니 내 회고록 선전해주기로 했다, 안 했다? 말해봐라.

쫄선 : 웬만해야 말이지. 이일부터 촘스킵게 ‘민주주의를 위한 회고록’이 뭐냐? 민주주의 이게 고만 썽먹을 때도 됐다.

사회자 : 네. 사람은 이쯤에서 그만 하시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북미관계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남한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티창 : 우선 정찰기 사건, 미사일 방어망,

교토의정서 파동 등 부시가 노골적인 힘의 외교를 하고 있어 주변국들의 반발이 높아지고 세계적으로 반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부시는 이러한 강압적 외교 노선을 다소 변화하려는 조짐인데,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지지 표명과 북한과의 협상 재개, 제네바 기본 합의 존중 등의 방침이 그러한 뜻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MD추진으로 꿈에 그리던 ‘스타 워즈’ 시대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겨 무척 안타깝다.

03 : ‘스타 워즈’ 그거 좋다. 스타라... 나는 항상 ‘스타’가 되는 걸 꿈꿔 왔는데.

안티창 : (혀를 차며) 그러니까 항간에 말귀를 못 알아 먹거나 지나친 공상에 빠져있는 우매한 이를 가르키는 말로 03이라고 하지. 최대의 욕이 ‘03스럽다’라는 건 알고 있나?

03 : 뭐라카고? 니 죽고 싶어?

사회자 : 과격한 말은 삼가해 주십시오.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북미관계가 개선될 조짐이 보인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북한이 EU국들과의 수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것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쫄선 : 흠,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진작에 이리 될 줄 알았다. 북한의 마지막 보루인 제네바 협정 역시 북한이 미국에게 걸고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 할 수 있지. 어떻게든 제네바 협정을 무용지물로 만들어서 미국이 외교상의 우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안티창 : 그러기 위해서는 차기 대선에서 내가 뽑혀야 한다. 나는 부시의 외교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사람 아닌가. 지난 번 정부의 MD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성명도 내가 부추겼으니 된 것이다. 무엇보다 나를 확실하게 밀어주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이다.

03 : 음... 대중은 내한테 말기래이.

쫄선 : 그렇다면 지역주의 선동, 패거리 주의 조장, 사실상 지령 내리기(?) 등은 내가 맡아오.

사회자 : 여러분의 반통일 작전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한반도의 신냉전 시대는 누워서 떡 먹기 아니겠습니까. 모두 선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좌담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상민 기자 neoc292@dongguk.edu

통일문화 만들기

“우리가 남인가요?”

풍류 즐기는 민족성 ... ‘다름’ 아닌 ‘같음’의 문화로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TV프로는 무엇일까? 한 연구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바로 ‘전국노래경연대회’라고 한다. 남한도 역시 ‘전국노래자랑’이라는 프로그램이 현재 십여년 넘도록 시청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어 통일문화, 즉 남북한의 공통분모 찾기에 커다란 실마리를 제공한다.

일찍부터 우리 한민족은 노래와 춤을 즐기는 것으로 유명하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힘든 농사일을 한바탕 농악놀이로 풀어버리곤 했다. 그리고 모두들 하나로 어울려 어깨춤을 덩실대는 모습은 남북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또한 남북한이 널뛰기, 쥐불놀이, 차전놀이, 바둑, 공놀이 등의 전통놀이를 즐기는 것에서 이제 남북의 문화는 더 이상 ‘다름’이 아닌, ‘같음’의 문화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은 김치라는 전통 음식문화를 함께 공유하고 있으며 하나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만으로도 통일문화의 중요한 밑바탕은 이미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남북의 명절은 어떻게. 먼저 북한에서의 명절은 단순히 남한의 민속명절만을 뜻하지 않고 국가경축일과 국제기념일을 통틀어 말한다. 신정(1.1), 김일성 생일(4.15), 김정일 생일(2.16), 정권창권일(9.9), 노동당 창건일(10.10), 국제노동절(5.1), 조국해방일(8.15), 헌법절(12.27)의 8대 국가명절과 음력설, 추석, 한식, 단오의 4대 민속

명절이 그것이다. 민속명절보다는 사회주의명절을 중요시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북이나 남이나 명절을 기해 성묘를 가고 옷벗이나 씨름을 하는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다. 또 설날에 용시돈이라 불리는 새뱃돈을 받고, 추석에는 햇곡식으로 송편을 해먹는 등 결코 그 모습이 남한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식생활에서도 남북의 민족 동질성은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한민족은 오랜 세월을 걸쳐 독특한 단일 음식문화를 만들어 왔다. 주식과 부식이 분리돼 곡물조리법이 발전하고, 음식의 간과 순맛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 특징이다.

특히 평양냉면, 감자농마국수, 해주비빔밥, 가지미식혜 등의 북한음식은 전통성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지역적 특색까지 두루 갖췄다고 평평이나 있다. 북한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향의 맛을 봤다”고 전한다. 남북이 하나의 민족임을 깨닫는 순간이었다는 것이다. 50여년 동안 맛보지 못했던 북한의 음식에서 고향의 맛을 느꼈다는 것은 그들에게 박한 감동이었음이 틀림없다.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도 남북문화의 공통분모를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조상과 웃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매우 강하다는 점이다. 북한 주민들의 예의바름과 친절은 어느 곳보다 강하다고 한다. 또 식생활에서 위사람을 존경하고 손님을 후대하며 이웃간에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의중

계 사는 풍습은 우리에게도 그다지 어색한 풍경이 아니다. 게다가 남북은 가정 내 가족관계에서도 부모를 공경하고 부양해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또 화장보다는 매장풍습을 선호하는 남북의 장례문화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이밖에도 위가 짧고 아래가 길어 보이도록 입는 조선옷과 깨끗한 옷차림이 사람의 인상과 품격을 말한다는 북한의 복식생활을 통해서도 통일문화를 이야기할 수 있다. 남한은 서구화를 받아들였으면서 북한과 마찬가지로 유교적 관습을 들어 아직까지 여성들의 짧은 치마를 꺼려한다. 여기서 우리는 남북한이 얼마나 많이 닮아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50여년 간 우리는 북한을 ‘빨이 세 개나 달린 머리가 많은 빨간 괴물들’이 사는 나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듯 남북문화의 닮은 꼴을 살펴보면 북한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한,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가 북한가요 ‘휘파람’을 흥얼거리거나 북한 사람들이 이미지나 남정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모습은 이제 더 이상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어깨춤을 덩실대며 ‘통일’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 뿐이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강추! 통일 앞당기는 매체

책

북한 어린이들은 어떤 놀이를 할까



우리가 방송으로 보아온 북한 어린이들의 모습은 어른보다 능숙하게 악기를 다루거나 어른들도 힘들다는 곡예연기를 실수없이 하는 모습들이다. 그러나 북한 어린이들도 남한 어린이들과 다르지 않게 그들 나름의 놀

이를 통해 배우고 익히며 성장해 간다. ‘북한 어린이들은 어떤 놀이를 할까’는 남과 북의 어린이들이 공통적으로 즐길 수 있는 ‘알치기’, ‘대말타기’ 등의 놀이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북한 어린이들의 놀이문화를 문화 형식을 빌어 소개한다. 책을 읽는 동안 남과 북의 동심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삼배·최진이 공저/ 피랑새 어린이/ 정가 7천5백원.

나의 북한 문화유산답사기



지난 98년 중앙일보에 ‘대동강’, ‘울밀대’ 등 우리가 접할 수 없었던 북한 문화유적을 소개한 글이 연재됐다. 이렇게 연재된 글은 북한의 문화유적 뿐만이 아니라 북한 사람들의 살냄새를 전해주는 일화까지 함께 소개해 오다 ‘나의 북한 문화유산답사

기’라는 책으로 묶여 발간되었다. ‘나의 북한 문화유산답사기’는 ‘평양의 날은 개였 습니다’의 상권과 ‘금강예찬’의 하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진도 함께 실려 있어 직접 둘러보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한다. 북한에 남아있는 유적을 돌보는 북한 사람들의 손길과 정성을 통해 보존된 북한 문화 유적지를 간접 여행할 수 있다. 유홍준 저/ 중앙 M&B/ 정가 상권 9천원, 하권 1만2천원.

인터넷 사이트

조선인터넷 (www.dprk.com)



‘인터넷 남북통일’이라는 목표 아래 운영되고 있는 ‘조선인터넷’은 그 시작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회사가 한 미국인으로부터 북한 국호 도메인 ‘www.dprk.com’을 200만 달러에 사들인 것이다. 다른 나라 사람의 손에 들어가 있는 도메인부터 찾

아온 이들의 통일열원은 비록 인터넷 상에서 작은 발걸음을 떼었지만 서서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 이 사이트에는 북한 관련 뉴스뿐 아니라 ‘통일시계’를 설치, 지난해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통일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경과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 눈길을 끈다. 그밖에 ‘북한의 연애’나 ‘북한의 대중문화’ 등의 커뮤니티를 개설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무비랜드 북한영화 (www.dprkfilm.com)



우리 나라에서 북한영화를 접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최근 북한영화 관련 사이트들이 증가하면서 북한영화를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영화포탈 사이트 무비랜드에서 운영하

는 ‘www.dprkfilm.com’은 북한영화사와 북한영화 제작시스템, 북한의 영화 장르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본교 북한학과 영화제작 소모임 ‘플리커’와 연계해 운영하고 있는 ‘www.dprkfilm.com’은 북한영화에 관한 학술적인 부분의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어 북한의 영화를 문화적인 측면뿐 아니라 학술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통일요리 길잡이 (northfood.new21.net)



‘통일요리 길잡이 (northfood.new21.net)’는 평양냉면, 대동강송어국 등 실용민들의 입을 통해 북한의 별미 요리로 전해져 온 북한요리를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요리방법을 소개한다. 그러나 북한요리를 직접 만들어 먹는다고 해도 글

몇 줄로 요리방법을 배워 제대로 된 요리의 맛을 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northfood.new21.net’은 조금만 다리품을 팔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전국 각지의 북한 요리집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또 북한요리에 관한 자세한 정보도 알 수 있으며, 요리에 관한 시식평을 올리는 게시판이 마련되어 있어 음식에 관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기쁨이 있다.

새로운 변화바람, 통일대동제

북한 영화 상영 등 북한 바로알기 행사 가득

“북한은 영화를 명절휴일이나 공휴일에만 상영한다?”

일출달출한 이 질문은 오는 28일 한남대 대동제에서 치러질 ‘이북 바로알기 OX퀴즈’에 등장할 예상문제이다. 올해 한남대는 지난해 주점과 공연을 주로 준비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의 대동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올해 열리는 대학 대동제는 예년과 다른 모습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남대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의 열정을 상징하는 대학의 대동제가 유명연예인 공연과 노예팅, 가요제 등의 화려한 장식에서 벗어나 ‘북한

을 바로 알자’는 내용으로 변모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6·15공동선언이후 남북통일무드에 따라 각 대학 총학생회는 그간의 행사와는 달리 학생들에게 북한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대동제 주요행사로 구성했다. 지난해까지 대동제는 주로 통일의 필요성을 알리는 선전전이나 문예공연으로 이뤄져 축제의 열기에서 조금은 벗어난 행사였다. 그러나 올해 통일행사는 대동제의 핵심을 이루면서 학생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퀴즈나 북한영화상영 등 대중적인 프로그램

을 바로 알자’는 내용으로 변모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대학보다 한 주 빨리 대동제를 진행한 경남대는 ‘6·15남북공동선언 퀴즈’와 박재규 전 통일부장관 초청 강연이 열려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6·15남북공동선언 퀴즈’에서는 학생들이 의외의 성적을 보여 문제 출제자들을 놀라게 했다는 후문이 돌리기도 한다.

또 22일부터 3일간 대동제를 진행하는 경기대는 지난 98년 북한을 방문한 6기 한총련 황선 방북 대표를 초청해 북한 강연회를 개최하며, 백두산 들쭉술·오갈피술·평양소주 등 북한 술과 삼색설기떡·순대 등 북한음식을 판매하는 통일장터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2001 자주통일대동한 마당’을 여는 경희대는 노천극장에서 ‘불가사리’, ‘령리한 너구리’, ‘호동왕자와 라랑공주’ 등의 북한영화를 상영하는 것과 더불어 ‘이북 바로알기 퀴즈’도 준비중이다. 전주 교대는 북한 실상 알리기 사진을 대동제 내내 학내 곳곳에서 전시하며, 성공회대는 ‘통일 가까이 가기, 골든벨을 울려라!’를 실시할 예정이다.

2001년 ‘북한을 바로 알자’는 흐름의 대동제는 ‘통일’과 ‘북한’에 대한 대학생의 의식에 작지만 큰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대동제의 부분적 행사이긴 하지만 대학 내에서 만들어 가기 시작한 ‘통일문화’는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을 가깝게 느끼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현정 기자
tellme@dongguk.edu

이념적 편견에서 비롯되는 남북 이질화

남과 북은 하나이다. 어릴때 반쪽의 삶은 이제 끝나야 한다. 남과 북이 만나 다시 본래의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남과 북이 하나되어 옛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남과 북을 접합시키는 수술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또한 살과 뼈를 붙이고 혈관을 잇는 대수술의 과정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할 것이며 큰 고통을 수반할 수도 있고, 수술후의 상호 거부반응으로 인해 예상외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통일 후 남과 북의 문화적 이질화로 인해 또 다른 마음의 분단을 쌓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하에 반세기 이상을 등지고 살아오면서 정치·경제, 사회·문화적으로 크고 작은 이질화를 겪어왔으며 특히 문화적 이질화는 남북한의 내적 통합에 있어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 적음하여 마음의 통합을 이루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사실상 남북한간 문화적 이질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 예로 남북한 언어는 모두 한글이지만 남북한은 한글을 다소 다르게 쓰고 있다. 북한의 이른바 ‘문화어’ 사용과 남한의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이 단적인 실례이다. 또한 주체사상에 의한 유일 사상적 통제와 개인 위상승배 문화 속에서 폐쇄적·집단지 생활을 해 온 북한 주민들은 비교적 단선적이고 경직된

사고를 지니며 수동적·타율적인데 반해 다원적·개방적인 경쟁사회에서 개인주의에 익숙한 남한 주민들은 개방적 사고를 지니고 있으며 능동적·자율적이다. 그러나 남북한간 문화적 이질화는 심각한 정도가 아니다. 이질화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북한 문화의 실상에 대해 잘 모르거나 아니면 이념적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남과 북의 문화 공존 모색은 서로의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남과 북이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특히 서로의 문화적 실상에 대한 올바른

인간적 신뢰와 존중 통해 문화차이 극복 ... 마음 하나되기

이해는 통일의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통일 후 남북한의 마음의 통합, 사람의 통합을 위한 선행조건이다.

그러나 아직은 폐쇄체제인 북한에 대해 남한 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먼저 북한 문화 실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북한·통일 관련 국민의식조사 결과들에서도 나타나듯 바,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다른 무엇보다도 북한 주민의 삶의 방식, 삶의 모습에 대해 알고 싶어하며 이질적인 것과 동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궁금해한다. 그러나 북한 문화의 실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할 몇 가지 기본 자세가 있다. 이는 다음의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남한과는 다른 북한 문화의 이질성에 대해 이념적 선입관이나 편견을 배제하며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이질성 수용의 자세이다.

둘째, 상호 문화적 이질성을 부각시키기보다는 동질성을 강조함으로써 가능한 한 심리적인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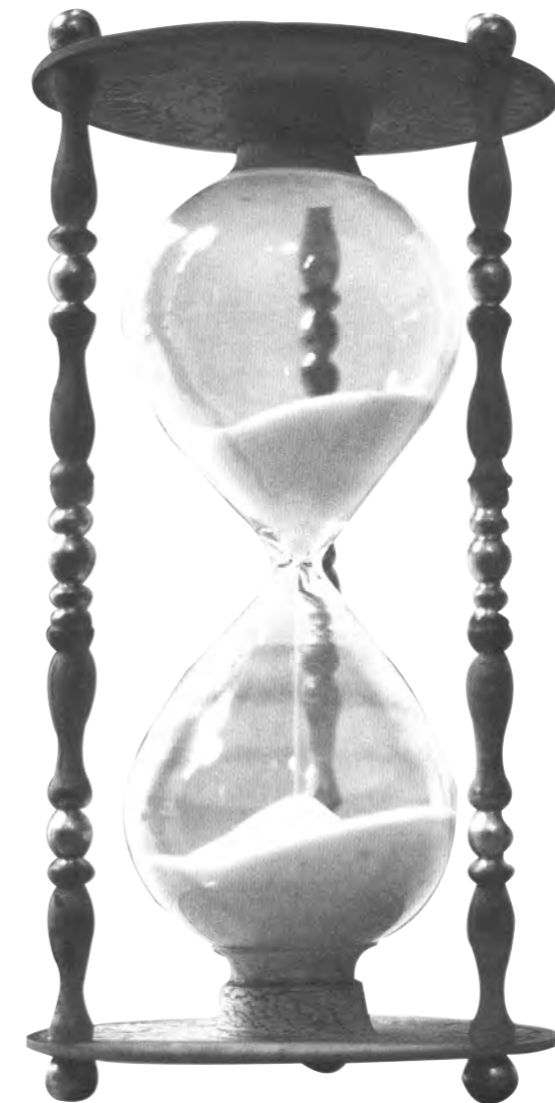
셋째, 북한의 문화에 있어 남한과 동질적인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이질적인 것은 부정적인 것으로 보거나 열등한 것으로 평가하려는 자기 중심적, 또는 우월적 태도를 지양한다.

넷째, 남북한간 문화적 이질성 극복 및 동질화는 남북한 사회통합과 남북문화의 조화라는 민족 화합의 차원에서 모색하며 통일문화 창조를 지향한다.

다섯째, 단순한 호기심이나 동경심에서가 아니라 진정한 동포애적 관심과 사랑으로 북한 주민의 삶에 대해서 알고 노력한다.

여섯째,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간적 신뢰와 존중이다.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을 내 이웃과 다름없는 보편적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신뢰할 때 그들의 삶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임 순 희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통일시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오늘(21일)로

341일이 지났다.

과연 남북이

하나가 될 통일

그 날까지

앞으로 얼마가 더 걸릴까.

소나기

중구난방 성인 기준



△땀땀 & 당당하게 술 마시면 어른!
 △버스에선 성인인데...
 △의무는 성인, 권리는 학생!!
 △뜨거운 거 마시고 '시원~하다'고 하면 성인이래요.
 △자기가 느끼기에 성년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가 성년이 지 뭐. 혹은 남자친구가 옆에 있을 때?
 △그냥 조선시대 식으로, 결혼해야 성인으로 인정하면 될 것... 결혼신고서를 최소형으로 축소복사해서 들고 다니면...
 △18살이면 성인이지!
 △결혼하면 '성인', 아니면 '미성년'
 △편리한 대로 매기는 '성인' 딱지!
 △진짜 '성인' 이 할 수 있는 일이 모호하다.
 △춘향이가 16살에 이도령이랑 살았다고 성인 아니라고 한사람 없었음.
 △'금전적인 자립'이아발로 진정한 성인이 되는 길이 아닐까?
 △주민등록증이 나오면 성인이다.
 △성인 요금 낼 때가 되면 성인이다(?)
 △비자카드를 만들 수 있으면 성인!!!
 △군대를 다녀오면 성인~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면 성인이 된 것이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웃을 수 있게 되면 성인이다.
 △자신이 한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성인!
 △부모님한테서 완전히 독립한 애어른?
 △미성년자 관할불가 영화를 땃땃하게 볼 수 있으면 되지~
 △탐먹고 의박해도 뭐라 그러는 사람 없을 때 난 성인이 된다.
 △애정행각을 벌여도 부끄럽지 않을 때 성인이지 뭐~
 △진하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나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남았을 때, 나는 성인이 돼야 했다.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베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나이.
 △양복을 입어도 어색하지 않을 때!
 △첫 예비군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내 모습.
 △성인이 되는 것은 결혼을 하고 난 뒤가 아닐까?
 △난 아직 어른이 뭔지 몰라~
 △책 읽길 사람이 생겼을 때...
 △중구는 이상해... 한여름에 웬 난방? 그것도 성인기준으로? 애들은 찌죽했구만...

오수기

장현석 (사과대 경찰행정4)

장기인증 캠페인 벌인 '라이프세어' 회원

“소외된 이웃과 어깨동무하고 싶어요”

얼마전 '장기인증, 이제는 우리가 나설 때입니다' 라고 쓰여진 서약을 들어 보이며 활짝 웃는 학생들의 사진이 일간지를 장식한 일이 있었다. 사진의 주인공은 90여명이 일제히 장기 인증을 서약해 화제를 모은 경찰행정학과 학생들. 뿐만 아니라 60여명의 본교생들이 소중한 생명을 나누겠다는 서약을 했는데 이같은 캠페인을 벌인 장본인이 대학연합 동아리 '라이프세어'의 장현석(경찰행정4)군이다.
 라이프 세어는 '살을 나눈다'는 뜻으로 장기기증을 약속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불교계의 '생령 나눔 실천회' 대학생 조직인 것이다. 그 역시 사후 각막 기증을 약속했고 올해 3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라이프 세어에서 장기기증으로 소중한 삶을 나누는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장기인증 캠페인을 벌이며 동참할 것을 권유하다 보면 종종 화를 내고

짜려보는 사람들이 있어 당황스러웠어요” 그의 말대로 '신체발부 수지부 모'의 뿌리깊은 유교적 고정관념은 장기기증이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데 장애물이다. 이처럼 장기기증을 꺼림칙하게 여기는 사회분위기에 불구하고 사흘만에 150여명의 학생들이 서약하는 등 라이프 세어의 캠페인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오래전부터 봉사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죠”라며 이를 배울 수 있던 계기는 라이프 세어 이전에도 꾸준히 해오던 '어깨동무'의 봉사활동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참사랑봉사단 내 불우이웃 돕기 봉사회라는 정식 명칭이 있는 단체를 '어깨동무'라고 불렀다. “불우이웃을 대상으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닌 그들과 어깨를 걸고 친구가 된



다는 생각을 가져야 진정한 봉사활동이 되지 않을까요?”
 요즘 그는 심화된 전공 공부를 위해 여름 떠날 미국 유학 준비로 바쁘다. 하지만 “미국은 사회보장제도가 발달된 만큼 봉사활동 방법 면에서 배울 것이 많겠지요”라는 말처럼 그의 유학생활은 공부가 전부가 아닌 봉사활동을 통해 사람들을 알아가는 과정도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 같다. 유학생활 중에도 삶을 나누자고 이야기하며 소외된 사람들과 '어깨동무'하는 모습이 변함 없기를 기대해본다.

우정현 기자 caesar2000@dongguk.edu

열린글터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pc 통신 ID 하이텔 dgpress 니우누리 : 동대신문

새내기 백일장 시부 전문

신록

스 하 가드 그림자 를 품었다.
 기쁘게 임하는 등성이마다
 그리움으로 깨어 혼이 푸르다.
 하마니 이혼 계약 품은
 잠을 자고 그 고이 기다.
 잠을 자고 그 고이 기다.
 그 속에 들어와서 시련이 되어,
 그 산 푸른 새 울음 울리고
 그려오는 한해 울음
 그 그림자 안으로 고이 때마다,
 하마니, 그 푸른 울음 울리고
 하마니 울리시며
 그리움으로 각인된 산을 오른다.

하루하가 다 인도로,
 하마니, 머 사 바라보며
 그리움의 고통 마다.
 산은 그루터기만 남은 중 모르고,
 이젠 단시에
 푸른 그림자를 품으시거나.

최선희 (예술대 문예창작)
 주처 : 서울캠 국문학과

대출실 관리 미비점

나는 평소 책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니지만 요즘은 리포트를 쓰거나, 외국어 공부를 하기 위해 경주캠프 도서관 대출실을 자주 이용한다.
 책을 찾기 위해 도서관 검색대로 가서 검색된 책 번호를 일일이 적어 잠시 사이를 살살이 찾아보지만 '대출가능'이란 단어가 무색하게 어디에도 찾으려는 책은 없다. 처음에는 짜증이 나도 찾지 못한 내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이런 일이 한두 번 계속 되다보니 도서관을 찾는 나는 '책이 없으면 어찌지?'하는 불안감과 함께 기분이 늘 개운치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주로 찾는 것은 외국어 관련된 책이다. 그래서 외국어장서 쪽으로 가보지만 너무 복잡해 책을 찾기가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형광등이 많이 달려 있던 하지만 작은 곳까지 세심하게 배려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학생이라면 학내에서 강의실 다음으로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도서관이다. 그럼에도 경주캠프 도서관은 도서관이라 하기엔 너무나 협소하다. 하지만 부족한 공간에 무조건 많은 것을 바라고 학교를 원망하는 말은 아니다. 내가 그저 바라는 것은, 있는 것이라도 빈틈없이 관리하는 것이 새로 만들고 넓히는 것에 대한 고민보다 앞서야 한다는 점이다.
 이해원 (인문대 미술3)

효율적 학생수첩 제작

4학년인 나는 2년간의 휴학으로 6년간의 학교 변천사는 웬만큼 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호텔업의 스키아 라운지같은 상록원 식당이다. 그 외에 학교 화장실도 깨끗하게 개조됐고, 컴퓨터 사용장소도 넓게 꾸며졌다. 이것들 모두 우리가 낸 등록금으로 이뤄졌다는 생각에 고생하시는 부모님 얼굴이 떠오르긴 하지만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설에 확실히 쓰였다는 돈의 출처를 알 수 있어서 좋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등록금 항목 중 하나가 바로 '학생수첩'이다. 한 학기를 쓰도록 만들어지지 않는 결표지일에도 매년마다 반 강제로 수첩대를 내고 사야 하는 것이 답답하다. 몇몇 학생들은 수첩을 받고도 시중에서 자기 취향에 맞춰 따로 구입하기도 한다.
 수첩디자인은 매년 발전하지만 언제나 카드 꽂는 부분이 조금씩 모자라 쓰기 불편하고 속지부분에도 학칙과 구내전화번호부 등이 정보제공을 빌미로 자리만 차지해 바로 떨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차라리 입학할 때 평생 간직해도 될 만큼의 고급 천연가죽에 지갑의 기능까지 고려한 디자인으로 동국대의 이미지를 부여한 수첩을 배포하고 속지는 학생 복지 차원에서 무료로 학기마다 나누어 줬으면 한다. 2500원 정도의 가격이지만 사기 싫은 수첩을 억지로 사는 기분나쁨

과 말쑥한 결표지를 버려야 하는 낭비를 없앨 수 있도록 말이다.

양사내 (법과대 법4)

최고의 가치 '이타심'

옛날 서양의 어떤 철학자는 인류에 있어 이타심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한 바 있다. 이타심이란 사전적 의미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뜻한다.
 짐참... 이타심의 상징으로 불리어지는 이것은 태을 때 훌륭한 향취가 나는 참나무를 가리킨다. 물보다 비중이 커서 물에 가라앉고 마는 참나무를 염수와 담수가 만나는 위치에 던져놓는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 염분이 스며들었다 다시 씻기를 수십차례, 결국은 독특한 향취가 배어게 되는데 그 향취는 사람의 뉘를 빼놓을 정도라 한다.
 아마도 침향 자재의 향보다는 '뉘 훗 날 누군가가 이 침향을 건져 태우며 즐겨 할 수 있었으면...'하는 참나무를 던지는 어부의 아름다운 마음 때문이 아닐까 한다.
 요즘 갈수록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럴 때 때 마른 세상의 보슬비가 될 수 있는 마음, 즉 누군가를 위해 참나무를 던지는 어부의 마음을 배워보고 싶다.
 신성규 (문과대2)

오월정신계승 5.18 삼행시 짓기

1등 : 5.18 정신계승상 - 원민희(국교4)
 오월이 이리도 일찍부터 무더웠음,
 세인들이 욕하지 마라.
 일찍이 죽어간 슬픈 청년들의 못다한 열망이
 팔월의 작열하는 태양보다 더 뜨겁기 때문인 것음...

2등 : 지주동일상 - 김민지(문예창작1)
 오로지 가슴 터지도록 열망했던 건
 내가 견고자 하는 길을 걷는 자유
 일그러진 군화에 짓밟혀
 품은 한없이 스러졌을지라도
 팔들어, 피로 새긴 신념은
 가슴과 가슴으로 이어 타고르리

3등 : 6.15공동선언상 - 정지영(국교2)
 오월 태양에 녹아드는 금남로
 아스팔트 위, 흠뻑려진 우리의 붉은
 선혈을 너는 기억하는가
 일어서서 너희의 충실한 개들에 맞서
 정의를 외쳤던 우리의 함성을 너는
 기억하는가
 팔팔팔팔 가너린 숨소리로 죽어가는
 우리를 웃으며 지켜보던 너
 니가 한지를 이제야 알았다면
 아메리카어! 이젠 이 땅을 떠나라
 주처 : 서울캠 학생복지위원회



동악광장

목 먹길

축하합니다

△5월 19일 인도철학 전공 홍서인 생일 축하해.
 △5월 19일 01 불교학부 황인선 생일 축하해!!! 건강찬 대학생으로 4년 무사히 마치기를...
 △5월 27일 장학수 22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민성군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졸업생일동
 △5월 20일 사랑하는 정철이 생일 축하추카!
 △종유이형, 생일 축하합니다. -O.J, E.K.
 △수학과 2년 인화랑 예비(공대3년) 동현의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
 △사회학과 98 우선회원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선회를 시모하는 사
 △축하합니다!! 인사모 2차 여행갑니다!
 인사모 FOREVER. -예쁜 7째딸
 △창장님의 스승의 날 TV출현을 축하드립니다!!
 △이과대 장산꽃매 13기 선배님들!! 성년의 날 너무 너무 축하드려요~
 △이쁜 14기 후배들
 △상진의 여자친구 희정의 귀국을 축하합니다.
 △진규

△명훈아! 항상 고생하는 멋진 과대! 생일 축하해, 글구 사랑해. -동기가
 △선희야! 5월 18일 생일 축하해. -영선
 △5월 20일 울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이에요. 오래오래 엄마 아빠 행복하세요. 축하해요. -귀영동이 주~
 △미정언니 생일 축하해요! 5월 26일 달려 달려!! -광기 광란 신명 마당
 △세무회계 99 씨니야~ 생일 축하해.
 -이마로 심
 △2번의 시도도 운전면허 필기를 합격한 친구에게 축하를... -충선
 △수고하셨습니다
 △아츨해오름식을 마치며... 울동패 여러분들! 빈, 정석, 은정, 미연... 그리고 주꿈. 고생많았어여~
 △일일일호프... 함께 탐험했던 무역과 뽕뽕(00) 그리고 귀여운 뽕일(01), 목요일 뒷풀이 정말개암~ 수고했습니다!!
 △디디돌 '일탈영화제' 준비하고 애쓰신 영준씨 여러분 그리고 돌방인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A.P.C.C. with O.D.C. 공연 잘했어요. -상열
 △9기 사남총련 출범식을 멋지게 성사시킨 준비단 여러분 수고했어요. -뫼남소년
 △성희야~ 생일날 조판하느라 수고했어요. △밤새면서 일하느라 모두들 수고한다. 앞으로도 잘하자!!

열심히합니다

△무역과 00 MT 열심히 합니다! 00 포에버!!
 △달새오빠! 기운내. 오빠라면 잘해낼게야. 지금처럼 결에서 지켜볼게. 화이팅!
 △동국문화회 봄 시·소설전 준비 못 도와드려서 죄송하구요~ 열심히 해요. -43대 소설마들
 △인도주점!! 정말 잘해보자.
 △이쁜 우리 친구들!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해여, 사랑해여. -이쁜이
 △풍물 연습 열심히 합니다!
 △풍국대 O.C.C. 파이팅!
 -성태, 동현, 지영, 승필, 성훈
 △홍규형, 요즘 힘들이어이던데. 힘내구. 우리 치열하자. 형. -달새
 △국문과 후배
 △국사 정희! 생일 축하추카! 내내에도 꽃분홍 잘바지를 보길... -쉬
 △내 친구 기건아! 복학하고 나서 너랑 더 많이 친해질 것 같아 난 더 기뻐함! 24번째 생일을 주영이랑 종진이 많이 축하해.
 △5월25일 치정오빠 생일 축하해. -내가
 △5월19일 태성♡은경 결혼 축하해~
 △용자야, 영주야. 결혼(?) 2주년 축하추카
 △찬호야 생일 축하해. -택
 △스더어 성원에게 애이 생겼어요! 성원과 현씨의 100일째 만남을 축하해 주세요. -안·공 96일동
 △관광대 박동균과 이영희의 2001년 5월

은방길

축하합니다

△내친구 복걸아! 늦었지만 생일 무진장 만나니 축하해~ 화이팅! -pooh사랑 주영이
 △삼경대 A반 경춘이의 전일 축하~ 선물-추리닝 1벌. 축하해. -울산님 일동!
 △22일 '택'생일 축하합니다. 택 작업 잘하기!
 △영주랑 용의랑 2주년이래요.** 추가~
 △국문과 93학년 이현정씨 공부원 시험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사 정희! 생일 축하추카! 내내에도 꽃분홍 잘바지를 보길... -쉬
 △내 친구 기건아! 복학하고 나서 너랑 더 많이 친해질 것 같아 난 더 기뻐함! 24번째 생일을 주영이랑 종진이 많이 축하해.
 △5월25일 치정오빠 생일 축하해. -내가
 △5월19일 태성♡은경 결혼 축하해~
 △용자야, 영주야. 결혼(?) 2주년 축하추카
 △찬호야 생일 축하해. -택
 △스더어 성원에게 애이 생겼어요! 성원과 현씨의 100일째 만남을 축하해 주세요. -안·공 96일동
 △관광대 박동균과 이영희의 2001년 5월

25일 이입니다. 만나 축하해 주세요.
 △불후 22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22기 일동
 △윤희야, 25일날 20번째 생일 진짜 축하한다. 남자친구 생긴 것도 축하해. -친구
 △정희야! 5월 24일 너의 생일을 무진장 축하해~ 이 날 짬나게 보내구 좋은 시간 보내라.
 △미리안아, 생일축하한다. 우아린동 빨리 밥 사라. 배고파 죽겠다. -이쁜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계림인들... 모꼬지 수고하셨습니다, 좀더 잘해요. 하게길 밝기가 있었어요. -계림 黃
 △천부인 일동! M·T 재미있었나요? 모두들 즐겨웠기를...다들 수고했습니다. 우리 또 열심히 공부합시다. -크리스탈 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계림인들... 모꼬지 수고하셨습니다, 좀더 잘해요. 하게길 밝기가 있었어요. -계림 黃
 △천부인 일동! M·T 재미있었나요? 모두들 즐겨웠기를...다들 수고했습니다. 우리 또 열심히 공부합시다. -크리스탈 쉬
 △수고하셨습니다
 △You-Loss 5회 신입생 환영 공연 잘하세요. 선배님들, 후배들. 학이 파이팅! 공연 보러 갈게요~ -8th 공
 △풍물가족 여러분 Study hard~!! -티아**, 다리짱랑
 △국문과 야구동아리 '불휘' 신입생 여러분, 이제 야구부도 마련했으니 기대보다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항상 보람되고 건강하게 생활하세요. -태성

△woodegi & gofang 열심히 삽시다!
 △Newsweek 여러분! 축제때 주말 열심히 삽시다.
 △Codyn Paste 여러분 공부 좀 하세요. -대뽕
 △찬호야, 5등은 실패했지만 앞으로 열심히 해라. 알렉스 코리아! 타격 연습해라!
 △그리고...
 △come back 하라. 여전사여~!! -겨·사
 △선배님들 우리 동아리 주막에 많이 와주세요~* -겨레사랑
 △화원 축제 때 만나서 엠티 근사하게 다녀옵시다. 화원 짱! -담사부짱
 △국제관계학과 4학년 김중진씨, 사랑합니다. 처음 보았을 때부터. -your지킴이
 △찬희 오빠 사랑해요. -란
 △순욱 오빠가 좋아요. -모양
 △동대 최고의 '밀먼'을 맞보고 싶으신 분은 꼭 우리 주막에 불러주세요. 맛 일품! 서비스 일품!
 △계영아! 21번째 생일(27일) 진심으로 축하하고 이제 남자친구만 생기면 딱이다 그제?? 계영이 파이팅!! -양희&주영
 △풍물가족 여러분 Study hard~!! -티아**, 다리짱랑
 △국문과 야구동아리 '불휘' 신입생 여러분, 이제 야구부도 마련했으니 기대보다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항상 보람되고 건강하게 생활하세요. -태성

속 시원하게 이야기 합시다

본격·대중문학 구분

찬성

반대

본격과 대중문학이 가진 개별적 특성에 맞는 충실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모 일간지에 '본격·대중문학 논쟁'이 9회에 걸쳐 게재되었다. 첫 회는 이용범의 원수를 향해 '찌러 총'을 외치대는 것 같은 사실을 필두로 시작했다. 이 논쟁은 토론과정에서 이인화의 '문학의 감화력', 조창인의 '대중문학이 수용해야 할 본격문학의 장점(진지함, 세련됨)', 박상우의 '작가의 글쓰기에 관한 원론적 문제' 등, 본격문학과 대중문학의 구분을 극복하고자 하는 몇 가지 단초들이 제시되었지만 색다른 것을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나는 본격문학과 대중문학은 당연히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골목에 본격이라는 한정식 집과 대중 패스트푸드점, 그리고 섞여져가나 잡탕밥집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는 맛깔스런 한정식을 먹고 싶을 때도 있고, 시간이 촉박하고 바쁘면 패스트푸드나 잡탕밥을 먹을 수도 있다. 한 골목에 세 곳 모두가 같이 있다고 해도 본

야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손님을 끌기 위한 대거리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분야가 틀리다는 것 때문에 그 골목은 다양한 먹거리와 손님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다. 정작 그들이 경쟁해야 할 상대는 옆에 새로 생긴 동종의 음식점이다. 그때는 장승우 씨가 말한 것처럼 좋은 문학, 나쁜 문학으로 갈려 맛이 없는 음식점은 문을 닫고 맛있는 음식점은 살아남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요즘에는 너도나도 잡탕밥 집으로 간판을 갈아치우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시대의 조류가 퓨전을 선호하는 잡탕밥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매일같이 잡탕밥만을 먹고 싶지는 않다. 본격은 본격 나름대로의 맛이 있고, 대중은 또 그 나름대로의 맛이 있는 것이다.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맛에 충실하고 연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신현대 (문과대 문예창작2)

얼마 전 모 일간지에서 대중문학과 본격문학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논쟁을 지켜보면서 문학을 공부하고 있는 나는 문학에 대해 좀 더 치열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일간지에 게재됐던 논쟁에 대한 생각들을 나열해 보기 전에 대중문학에 대한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예전에는 대중이라는 의미가 능동적이지 못하며 무지한 시민들을 통칭한 것이었다. 그러나 요즘의 대중은 자신들의 의견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강한 의지와 자신감을 지니고 있으며 인터넷의 발달로 많은 정보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중문학은 더 이상 하위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어느 정도의 문학성과 흥미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문학이 삶을 반영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본격문학만이

작품을 읽는 독자의 이해를 위해 본격은 대중문학에 흡수돼야 한다.

그 역할을 다 해낼 수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작품을 읽는 사람은 필자가 아닌 독자이다. 독자가 이해하지 못하면 문학이란 존재할 필요가 없다. 본격문학이 대중에게 소화되지 못한다는 것은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병을 치료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대중문학이 독자에게 감동을 주고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다면 이미 본격문학과 대중문학이라는 울타리를 뛰어 넘어 '좋은 문학'으로 불려져야 할 것이다.

물론 냉정하고 엄밀하게 작품성을 따지고자 할 때 본격문학과 대중문학의 구분은 용이함을 제공하며 작가의 치열성에 대한 고민에도 보탬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문학을 문학 자체로만 존재가치를 따지려는 태도는 작가와 독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는 힘들 것 같다.

박경아 (문과대 문예창작2)



열린글터

정부가 실업자들을 감당하기 위해 만들어 낸 특수한 형태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중국은 국제사회의 중심으로 치솟기 위한 부와 자원, 노동력까지 모든 준비가 되어있었다.

하지만 중국의 변화가인 왕푸징 거리 뒤쪽에는 아주 허름한 모습의 실업자들을 볼 수 있었고, 가이드는 중국의 부는 극소수가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중국정부는 그들의 야망을 위해 국민들을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았다.

들어오는 배에서 화회장인 이승영(국제통상학)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았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기술의 일본과 저임의 중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같은 상황에 있는 나라로 본다라고 하지만 샌드위치에서 가치를 높이는 것은 빵이 아니라 빵 사이에 낀 계란과 햄 이라고 하셨다.

우리나라는 21세기 동아시아의 선도가 될 수 있고 그 주역은 바로 우리 젊은이들이 것이다. 중국은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이면서 가장 큰 시장이 될 것이다. 비록 중국의 일부분만 보았지만, 이번 여행에서 나는 그것이 중국정부에 의해 실현되어 가는 과정임을 느꼈다.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역할을 생각해보며 어떠한 내가 돼야 할지를 자문하는 동안 배는 인천항에 닿았다.

김재석 (경명대 국제통상3)

서울캠 TEL 02)2260-3491-2 경주캠 TEL 054)770-2057-8 FAX 02)2279-1270 FAX 054)770-2057

특별기고 - 전국 대학생 장보고 무역현장 체험기

웅비를 준비하는 중국대륙에 가다

21세기 동아시아를 이끌 우리나라와 주역들의 자세

지난 달 10일부터 16일까지 한국무역학회에서 주최하는 '전국 대학생 장보고 무역현장 체험교육'이 있었다. 21세기 한국무역을 주도해 나갈 중국의 대학생들에게 해상왕 장보고의 정신을 알리고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가장 커다란 위치를 차지할 중국을 직접 현장에서 겪고 배우는 행사였으며 참여인원만 338명이나 되었다.



설레임을 안고 천진항으로 가는 배 위에서 찍은 동료들과의 모습.

중국에서 우리가 주로 교육받은 곳은 북경이다. 2008년 올림픽 개최 후보지이며 황제의 도시인 이곳은 정말 인상적이었다.

또한 일단 중국정부에 의해 재단된 듯한 도로에서부터 엄청난 크기의 고급 건축물들 그리고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한 빌딩들까지 모두를 어마어마했다.

특히 중화세기단으로 향하는 길에 본 북경시역은 어릴적부터 서울역의 열 배는 돼 보였다. 이렇게 중국정부가 교통에 대한 투자와 상징적인 크기의 건물을 짓는 이유는 중화세기단을 보고서 감을 잡을 수 있었다.

99년 말에 지어진 중화세기단은 중국이 새 천년을 맞아 과거를 되새기고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중국정부의 꿈을 담은 건축물이다. 별로 볼거리는 없었지만 2층 원형의 벽은 과거의 영화를 벽에 새겨 넣어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그 끝에 선 공산당의 영웅 모택

동은 새로운 꿈을 향해 손을 뻗고서 중국정부의 야망을 드러내고 있었고 그들의 야망은 바로 국제사회의 중심에 서려는 것이다.

북경의 전자상가 중관촌에서는 중국의 기술력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시내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고급 외제차들,

2차 전공결정 및 복수(연계)전공 시행

I. 전공결정

1. 대상자
가. 2001학년도 2학년 재학생 및 2학기 복학생
나. 1차 전공배정자 중 전공변경 희망 학생
다. 일반인원외교부 학부(계열)소속 2학년 재학생

2. 전공결정 시기별 배정인원 유형

| 전공결정 시기 | 최대 배정비율 | | | 비고 |
|------------|---------|-----|------|----------|
| | A형 | B형 | C형 | |
| 1차-2학기 이수후 | 100% | 80% | 50% | 19학년도2학기 |
| 2차-3학기 이수후 | 50% | 70% | 100% | 20학년도1학기 |

해당 대학: 법, 교육, 사회과학, 공과, 경영, 생명, 토목, 디자인, 예술, 생활과학, 문과

3. 일정
가. 전공결정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1) 2학년 재학생: 2001. 5. 28(월) ~ 31(목)
2) 2학년 2학기 복학생: 2001. 6. 11(월) ~ 13(수)
※ 복학생은 복학일과 동시 전공결정신청을 제출함.
나. 전공결정 확정일: 2001. 8. 10(금)이전에 대학별로 공고함.

4. 전공결정 기준 원칙
가. 전공결정은 원칙적으로 학생의 희망에 따라 결정한다.
나. 전공결정 대상자는 소속 모집단위(대학,학부)의 개설전공만 지원할 수 있으며, 각 전공마다 우선순위를 정하여 4지망까지 지원하여야 한다. 단, 소속대학에서 개설전공이 4개 이하인 경우에는 4지망 미만이 될 수 있다.
다. 전공결정 과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배정한다.
1) 전공별 2차정원: 각 전공(학부)별 정원비의 150%에 상한선 이하에 정원을 배정한다.
2) 전공별 1차정원: 각 전공(학부)별 정원비의 150%에 상한선 이하에 정원을 배정한다.
3) 정원 초과 시: 정원 초과 시에는 1차 정원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1지망 선락에 신청하여 배정한다.
4) 정원 미달 시: 정원 미달 시에는 2차 정원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2지망 선락에 신청하여 배정한다.
5) 정원 초과 시: 정원 초과 시에는 1차 정원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1지망 선락에 신청하여 배정한다.
6) 정원 미달 시: 정원 미달 시에는 2차 정원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2지망 선락에 신청하여 배정한다.

5. 배정기준
가. 1학년 1, 2학기, 2학년 1학기 성적과 계열학기 성적률 통산한 누적 평점평균을 비교 적용한다.
나. 2001학년도 2학년 1학기 조기복학생(2학기 학부)의 2학년 2학기 조기복학생(2학기 학부)의 성적과 계열학기 성적률 통산한 누적 평점평균을 비교 적용한다.
다. 2001학년도 2학년 재학생 및 복학생이 3학기 이수자더라도, 1학년 수료학점을 미달할 경우 2학기 이수자와 동일하게 성적 처리한다.

라. 2001학년도 2학년 2학기 복학생 중 3학기 학부 이수자는 2차 전공배정 전이원내에 한하여 3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으로 2학년 재학생과 동일하게 성적 비교, 적용한다.

6. 일반인원외교부의 전공결정
2학년 1학기 일반인원외교부 대상이 되며 2000학년도 입학자의 배정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학기수 부족에 대한 차순위 배정은 하지 않고 2학년 1학기 성적만을 일반학과와 비교 적용한다.

7. 통점제 차등기준
가. 제1기준: 개인별 누적 평점평균을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비교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나. 제2기준: 평점평균이 동일할 자 중에서 총 취득학점이 많은 자가 우선한다.
다. 제1, 2기준에도 동일할 경우 동순위로 처리한다.

8. 결과조치에 따른 전공결정 배정
가. '99학년도부터 '99학년도까지 공과대학 기계·식품·화학공학부(공학계열)입학자가 생명자원과학과 소속 변경한 경우 정원의 학생과 동일하게 우선 전공배정 한다.
나. 기타 결과조치에 따른 전공결정 배정은 별도기준에 의하여 2차정원을 배정한다.

9. 소속변경에 따른 복학생의 전공신청
가. 복학생은 변경된 소속내에서라도 입학상시 소속된 모집단위에 개설된 전공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모집단위 위가 세분화되어 변경신청한 경우 변경한 학부 소속 전공만 지원가능하다.
가. 문과
1) 인문학과: '99년~'99년도에 인문학부로 입학한 학생은 사학, 철학, 관리문화학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3지망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2) 문리대학: '99년~'99년도에 문리대학으로 입학한 학생은 정치외교학, 행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아시아지역학전공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4지망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법학대학과 경제학은 지원할 수 없다.

다. 사회과학계
1) 사회과학계: '99~'99년도에 입학한 사회과학계 소속 학생은 정치외교학, 행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아시아지역학전공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4지망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법학대학과 경제학은 지원할 수 없다.

라. 경영대
1) 경영학부: '96~'99년도에 입학한 경영학부 소속학생(경상학부에서 변경한자 포함)은 회계학과, 세무회계학과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광고학과는 지원이 불가능하게 2지망까지 지원하여야 한다.
2) 회계학부: '96~'99년도에 입학한 회계학부 소속학생(경상학부에서 변경한자 포함)은 회계학과, 세무회계학과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2지망까지 지원하여야 한다.
3) 생명자원과학대(생명자원과학부): '96년~'98년도에 입학한 생명자원과학부 소속학생은 식물자원학, 산림자원학, 생물학(이과소속)전공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3지망까지 지원하여야 한다. 단, '99학년도에 입학한 학생은 식물자원, 산림자원, 생물학, 생명자원산업융합전공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4지망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바. 공과대
1) 전기전자공학부: '96~'99년도에 입학한 전기전자공학부 소속 학생은 전기공학과 전기공학대 지원이 가능하게 2지망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2) 건축토목공학부: '96~'99년도에 입학한 건축토목공학부 소속 학생은 건축공학, 건축학, 토목환경공학전공에만 지원이 가능하게 3지망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3) 공과대학(기계시스템공학부): '96~'99년도에 입학한 공과대학 및 기계시스템공학부 소속학생은 기계공, 화학공, 식품공학전공(생명자원과학대 소속) 지원이 가능하게 3지망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사. 정보산업대
1)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우진): '96~'99년도에 입학한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소속인자(96 공과계열 및 '97정보산업대 입학자)는 입학자에서 변경한자 포함)는 컴퓨터공학정보통신공학, 멀티미디어공학 전공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2) 산업시스템공학부: '96~'99년도에 입학한 산업시스템공학부 소속인자(96 공과계열 및 '97정보산업대 입학자)는 변경한자 포함)는 산업공학전공과 정보시스템공학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아. 야간외교부
1) 경영학부(야): 1998년에 경상학부(야)로 입학후 경영학부(야)로 소속을 변경한 학생 및 1997년~1998년에 경영학부(야) 입학자는 야간 경영학전공, 정보관리학전공 및 야간 광고학전공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2) 회계학부(야): 1998년에 경상학부(야)로 입학후 회계학부(야)로 소속을 변경한 학생 및 1997년~1998년에 회계학부(야) 입학자는 회계학전공(야)과 세무회계학전공(야)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2. 일정
가. 복수전공(연계전공)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 2학년 재학생: 2001. 5. 28(월) ~ 31(목)
2) 2학년 2학기 복학생: 2001. 6. 11(월)~13(수)
※ 복학생은 복학일과 동시 복수전공(연계전공) 신청원을 제출함.
나. 복수전공(연계전공) 확정일: 2001. 8. 10(금)이전에 대학별로 공고함.

3. 기본 원칙
가. 선발인원: 2000학년도 복수전공(연계전공)선발 전이원내 인원 기준,학과(전공)별로 배정가능인원이 설정된다.
나. 지원자가 배정가능인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취득 성적(포함) 누계평점평균을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비교하여 선발한다(동일한 경우 동순위로 처리한다).
다. 배정인원에는 정원의 입학학이 모두 포함된다.
4. 대상학과: 다음 각 호 제한사항의 전학과(전공)에 복수전공 가능하다.
□ 제한사항
가. 한의학과,외교학과 복수전공 불가
나. 캠퍼스간 교차 복수전공 불가
다. 교외전공 이수여부를 제외한 비사범계열 학과와 사범대학 내 학과의 복수전공신청 불가한다.
라. 예체능 학과(전공) 지원시 해당학과(전공)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통과하여야한다.

5. 학점 이수 및 졸업관련 내용
가. 졸업인계
1) 학점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복수전공의 이수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복수전공의 이수요건을 희망하는 자는 2학기까지 한하여 졸업요건을 연기할 수 있다. 단, 마지막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졸업자(포함)는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도 학위수여는 할 수 없다.
3) 복수전공 이수중 중도 포기한 경우 단일전공시 전공의자이수학점을 취득하여야만 졸업이 가능하다. 즉 140학점 졸업학점 기준으로 단일전공학점이 50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4) 복수전공을 이수한자는 졸업증서와 학위패를 관련 전공을 표시하고 복수전공을 취득한 학 위를 통시여 수여한다. (통일한 졸업증서 및 학위패)
5)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2전공 또는 제3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도 학위수여는 할 수 없다.
6) 복수전공을 이수한자는 졸업증서와 학위패를 관련 전공을 표시하고 복수전공을 취득한 학 위를 통시여 수여한다. (통일한 졸업증서 및 학위패)
7) 복수전공을 이수한자는 졸업증서와 학위패를 관련 전공을 표시하고 복수전공을 취득한 학 위를 통시여 수여한다. (통일한 졸업증서 및 학위패)
8) 복수전공을 이수한자는 졸업증서와 학위패를 관련 전공을 표시하고 복수전공을 취득한 학 위를 통시여 수여한다. (통일한 졸업증서 및 학위패)
9) 복수전공을 이수한자는 졸업증서와 학위패를 관련 전공을 표시하고 복수전공을 취득한 학 위를 통시여 수여한다. (통일한 졸업증서 및 학위패)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복수전공 변경신청시 해당 복수전공 허용인원 전액에 한하여 허가한다.
나. 연계전공의 이수학점은 36학점 이상으로 하며, 연계전공을 이수하였으나 제2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위를 취득할 수 없다.

III. 공통 사항

1. 신청 절차
가. 개인별로 학업지도교수(또는 주임교수)와 충분한 면담을 거친후 본인의 적성과 진로계획을 고려하여 지망할 제1·2·3 전공을 결정한다.
나. 지원자 작성서에 배정가능인원을 고려하여 지원한다.
다. 교부받은 신청원(OA카드)의 모든 기재사항은 컴퓨터용 서식서체로 정확하게 작성한다. 다만 제2·3 전공은 희망자에 한하여 해당내용을 기재한다. 특히 배정인원내에서 신청 전공코드를 확인 후 정확히 표기한다.
3. 제2전공은 본인이나 소속내 대학(학부)내 전공중 4지망까지만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복수전공(연계전공)은 소속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4. 작성된 신청원은 학업지도교수의 확인인 후 사인을 받아 소속내 학과에 접수한다.
5. 일단 접수된 신청카드를 원칙상 취소 및 정정이 불가하게 본인이나 접수한 최종학원을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기타
가. 개인별로 이수한 교과목중 복수(연계)전공이 허가된 제2, 3 전공과 일치 하는 전공교과목은 '복수', '복수', '연계'로 이수하여야 자동변경된다.
나. 편입생은,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입학생, 정원의 입학생(농·어촌, 외국인, 교포 등)의 경우에도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복수전공 시험원칙을 적용한다.
다. 교외전공을 희망하는 인디시 해당 전공(연계전공)에 배정가능인원내에 배정 가능하다.
3. 기초특화과목인 국제통상서비스업 전문· 정보기술전문· 광고학전문 3과목중 1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4. 제2전공 신청시 '96, '97, '98년에 입학한 경영학부(야)학생은 입학당시 경영학부(야)에 개설전공이었던 광고학전공(우진)에 지원이 가능하다.
5. 경영대학 복수전공자는 이례의 교과(학부)내 전공중 4지망까지만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복수전공(연계전공)은 소속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6. 제2전공을 이수한 학생은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전공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7. 기초특화과목인 국제통상서비스업 전문· 정보기술전문· 광고학전문 3과목중 1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8. 산수교육 3과목중 1과목은 반드시 복수전공하고자 하는 전공의 기초과목이어야 한다.

행정자치부 주치 공직설명회

공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직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 시: 2001. 5. 28(수) 10:00
- 장 소: 덕안세미나실
- 설명회 주요내용
 - 공무원 인사 및 후생복지, 교육훈련제도 소개
 - 2001년 공무원 채용시험 인원, 일정 등 안내
 - 공직적격테스트(PSAT) 도입 등 고시제도 개편 내용
 - 선배 공무원과의 대화
- 문의: 취업지원팀 (☎ 2260-3054)

학생처

평생교육시과정 이수신청서 접수

2001학년도 평생교육사(구 '사회교육전문요원')과정 이수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합니다.

- 신청자격: 2001학년도 1학기 현재 2학년 재학생
- 자격종류: 평생교육사 2급 (구 '사회교육전문요원 1급')
- 접수기간: 2001. 6. 4(월) ~ 6. 8(금)
- 접수처: 사범대학 교과과
- 문의: 사범대학 교과과 (☎ 2260-3380)

달하나 천강에

시신기증의 참 의미



박인식
한대의대
해부학 교실 교수

“한대의대에서도 해부학을 하나요? 정말로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건가요?”

한대의에서 해부학을 담당하고 있는 내가 자주 듣는 질문중의 하나다. 물론 대답은 “Yes”이다. 의학 교육과정 중 해부학 실습은 인체를 대상으로 우리 몸의 정상적인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는 기초학문으로서, 유능한 의사를 길러내기 위한 필수과정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예비의학과 뿐만 아니라 예비의학도에게도 필수적인 과목이다. 인체를 치료할 사람이 정상적인 인체 구조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여기서 해부학을 위해 꼭 필요한 실습재료가 인체이다.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알기 위해서는 시신을 이용해 인체해부실습을 해야 하고, 그 시간에 습득한 고귀한 지식들은 평생 가슴 속에 품고 살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대의 학생들이 실습할 시신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나는 해부실습을 하기 전 항상 “해부학을 잘 모르는 의사는 두터지와 같다” “자신의 몸을 기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시신에 칼을 댄다는 것은 도둑놈 심보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올해 해부실습에 참여하는 학생 대부분이 ‘시신 기증서’에 서명하는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해 냈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예비 의과나 한의과도들은 해부실습을 통해 의사가 되고,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을 바로 세우게 된다. 또한 만약 해부할 시신이 평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온 훌륭한 분이나 사후 의학 발전을 위해 자신의 몸을 기증한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 고귀한 뜻에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기도에 보답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의사가 되는 길에 들어서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자신이 어떤 의사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시신기증은 본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뜻에 따라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해 의학 교육기관에 시신을 기증하는 것이다. 어쩌면 시신기증을 결정한 한의과도들은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참 의식을 펼칠 예비 한의과도들이 자랑스럽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시신기증에 대해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한 한의과도들을 지켜보는 것이 뿌듯하다.

35mm 필름에 담긴 인권이야기

5.5인권영화제 ... 다양한 기획으로 현실 조명

그리스 신화에는 사람을 짐대에 얹혀 다리가 나오면 자르고 짧으면 늘려서 죽인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사나이에 대한 우화가 나온다. 모든 사물을 자기의 자로 재고 획일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이르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말은 여기서 유래된 것이다. 끔찍한 이야기 같지만 주위를 살펴보면 우리 사회에서도 개인의 인권과 사상을 억압하는 각종 검열과 국가보안법 등 현대화된 프로크루스테스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맞서 인권과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온 사람들이 있다. 92년 출범해 ‘인권’이라는 화두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온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 18일 광화문 흥국생명 지하 아트큐브 극장에서 ‘5.5 인권영화제-다시보는 명작선’을 개최했다. 올해로 여섯 돌을 맞는 인권영화제는 지난 5년 동안의 활동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6회가 아닌 ‘5.5 인권영화제’란 이름으로 영화제의 막을 올렸다.

영화제 개막식은 18일 오후 7시 30분, 총 기획자 김정아 씨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이날 개막식은 이종직(중앙대 영화학) 교수가 사회를 보고, 상영작 중 ‘북, 종이, 미사일’의 제임스 맥किन, ‘인간의 시간’의 태준식 등 영화를 제작한 감독들이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총 41편의 상영작 하이라이트가 펼쳐진 후 곧이어 상영된 개막작 ‘세 개의 보석이야기’는 가자 지

역 난민촌에서 사는 12살 소년을 통해 팔레스타인의 인권현실을 조망하는 영화다. 이 작품은 이번 영화제에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 분쟁에 대한 성찰을 담아내고자 기획한 ‘이슈포커스’ 중 유일한 극영화다.



특별기획은 이외에도 세계 인권영화 명작과 인기 작가 모음전 ‘다시 보는 명작선’과 ‘애니휴먼’ 등이 있으며, 특히 ‘다시 보는 명작선’에는 지난해 5회 때까지 폭발적 인기를 끌었던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볼리비아 일기’가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도 영화제는 노동, 여성, 전쟁, 매춘, 인종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세계 인권상황을 보여준다. 비전향 장기수, 여성 장애인, 미군 양민학살 사건 등을 그린 한국영화를 상영하는 코너도 준비되어 국내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종직 교수는 “마음껏 분노하고, 웃고, 울고, 마음 아파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라며 “영화보다 중요한 것은 인권”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자유와 권리가 침해당하는 현재의 인권문제를, 영화를 통해서 대중에게 알리고 개선해나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영화 속 프로크루스테스는 영웅 테세우스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그것으로 영화 속 사람들은 더 이상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다. 우리에게도 인권운동 사랑방과 같은 고독한 테세우스들이 있다. 하지만 인권을 인권운동 단체의 사람들만 수호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 테세우스가 되어 프로크루스테스로부터 우리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때가 아닐까.

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우리 이름은 전태일이다!”

고통받는 노동자 대변한 연극 ‘전태일’ 재공연

“...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 그대들의 전체의 일부인 나. 힘에 겨워 굴리다 못 굴린, 그리고 또 끌려야 할 덩이를 나의 나인 그대들에게 맡긴 채 ...”

2001년, 훌쩍 커버된 지식들의 학비와 구조조정의 칼날 앞에서 우리들의 ‘전태일’은 오늘 하루도 힘겹다. 어두운 방구석에 처박혀 언제 멈출지 모를 녹슨 기계처럼 위태롭게 침묵할 뿐인 오늘날의 ‘전태일’은 70년대 전태일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하지만 살아있었다면 그의 나이 53세, 그도 어느 노동자와 다름없이 한 가정의 가정으로 평생을 일 해왔을 것이다.

지난해, 전태일 열사 30주기를 맞아 행해진 여러 행사들 중 연극 ‘전태일’의 인기는 그야 사람들의 가슴속에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힘입어 올해 다시 연극 ‘전태일’이 지난 12일부터 대학로 동송홀 무대 위에 올려졌다.

22살의 젊은 나이에 근로기준법과 함께 자신을 불태웠던 그는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이

였을 뿐 아니라 70년대 한낱 미물로 취급받던 노동자에게 인권이 존재함을 일깨워준 최초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극에 등장하는 총 11명의 전태일은 그 역시 전체 노동자 중 일부부임을 상사시키게 한다. 또한 가장 순수한 전달 매개체인 몸짓으로 표현하는 여공들의 끊임없는 작업은 눈 뜰 때부터 감을 때까지 하루종일 일하면서든 가난에 허덕여야 했던 어린 노동자들의 고통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6. 70년대 수많은 노동자들은 경제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군부독재의 탄압으로 희생되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박정희 기념관 건립은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피와 땀을 착취한 박정희에 대한 왜곡된 찬사하기에 더욱 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이것은 기념관의 주인은 박정희가 아니라 전태일과 노동자들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태일이 죽은 지 서른 한 해가 지났지만 그가 힘에 겨워 굴리다 만 노동의 ‘덩이’는 신자유주의와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이 시대 노동자들을



다시 무대에 오른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짓누르고 있다. 하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여공들이 한 미싱사의 뱃속에서 끄집어내는 풀잎은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나의 이름은 무엇이나, 너희의 이름은 무엇이나, 우리의 이름은 전태일이다”라는 외침은 그러한 희망을 우리 모두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하다.

MF이후 최악의 경제상황을 겪고 있는 지금, 내가 ‘전태일’임을 인식할 때, 연극 ‘전태일’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손상민 기자
neo9292@dongguk.edu

작은소식

미술학부 소품전

서울캠 미술학부가 봄 정기 소품전을 가진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작품을 출품한 이번 전시회는 서양화, 한국화에 이어 오늘(21일)부터 23일까지 조소 작품을, 24일부터 26일까지 불교미술 작품을 전시한다.

참을 내어 다양한 분야에서 기량을 뽐내는 학생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오는 26일까지,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 90주년 기념 문화관 지하 1층 갤러리 동국에서. 문의 2260-3670

디디돌 영화제

서울캠 영화 동아리 디디돌이 ‘일탈’이라는 주제로 봄 정기 영화제를 개최한다.

다양한 단편 모음과 사무스파크, 엑소시스트, 오디션 등 미개봉 영화가 학림관 소강당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문의 016-253-2798(황재순)

| 시간 | 발표 | 22일(화) | 23일(수) | 24일(목) |
|-------------|-------------------------------|--------|----------|--------------------|
| 10:30~12:30 | 단편모음(마우스, 빈센트, 불꽃놀이, 호모비디오쿠스) | 렌지의 불 | 블러드 데라스트 | 한니발 (왔던 사람에 한해 무료) |
| 13:00~15:00 | 사무스파크 | 잠시의 시간 | 오디션 | |
| 15:30~17:30 | 고하트 | 아이디호 | 엑소시스트 | |
| 18:20~20:30 | 오디션 | 엑소시스트 | 이웃의 야미다 | |

소리몽짓 공연

경주캠 의과대학 연극 동아리 소리몽짓이 여덟 번째 워크샵 공연을 가진다.

이번 무대는 중세시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모리에르’라는 원작을 ‘할 수 없이 의사가 된 나무꾼’의 이야기로 풀어낸다.

나무꾼과 그의 가족들이 엮여 가는 재미있고 슬픈 사건들을 통해 가족 사랑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오는 23일, 24일 오후 6시. 원효관 소강당 1에서. 문의 018-511-0533(임지현)

영상사진 예술연구회 사진전

경주캠 영상사진 예술연구회가 ‘제17회 축제 사진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회는 영상인들이 현상에서부터 인화·확대 작업까지 직접 참여한 순수 창작품 40여점이 선보인다.

특히 다양한 표현기법으로 연출된 신인생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이다.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경주캠 학생회관 2층 전시실에서. 문의 054)770-2751

동국대학교 개교 95주년 / 교육방송국 개국 42주년 기념 제3회 전국 고등학생 방송작품 경연대회

동국대학교가 올해로 개교 95주년이 되었으며, 교육방송국(DUBS)이 1959년 첫 방송을 시작한지 42주년이 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고 또 고등학교 학생들이 방송제작 활동을 통해 창의성을 개발하고 협동심을 기르며, 청소년들의 건전한 방송문화 창달과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전국 고등학생 방송작품 경연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부문 : 오디오, 비디오(영상물)
- 작품내용
 - 고교생들의 꾸밈없고 발랄한 의식이나 삶, 화목한 가정, 건강하고 재미있는 학교생활, 또는 지역적, 사회적, 교육적 특색을 소재로 방송이 가능한 내용으로 한다.
 - 구성(포맷)은 종합구성, 일방구성, 취재구성, 다큐멘터리, 드라마 등 제한이 없으나, 반드시 창작물이어야 한다.
 - 작품 길이(RT)는 10분 ~ 15분으로 한다.
- 심사기준
 - 심사는 작품의 주제성, 내용구성, 연출, 연기, 녹음 기술, 음악, 음향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독창성, 건전성, 교육현장의 사실성 등을 우선한다.
 - 요망 작품이나 외부의 도움을 받은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 작품 길이(RT)가 제한된 시간에 미달하거나 초과된 것만 감점한다.
 - 심사위원 : 본 대학교 신문방송학과와 영화영상학과 교수 및 기성 방송국 방송인
- 심사와 특전
 - 시상
 - 대상 : 오디오/비디오(영상물) 구분 없이 1팀 - 상패와 장학금 100만원
 - 금상 : 오디오/비디오(영상물) 부문별 각 1팀 - 상패와 장학금 50만원
 - 은상 : 오디오/비디오(영상물) 부문별 각 1팀 - 상패와 장학금 40만원
 - 동상 : 오디오/비디오(영상물) 부문별 각 1팀 - 상패와 장학금 30만원
 - 지도교사상 : 1명 - 상금 30만원
 - 심사결과에 따라 장려상을 시상할 수도 있음.

동국대학교 교육방송국 · 신문방송학과

2001학년도 제1학기 명사초청특강 색다른 성교육(性教育) I · II

1. 일시 : 2001. 5. 29(화)~30(수), 18:00~20:00

2. 장소 : 학림관 4층 J406

- 강사
 - 첫째날 : 장 진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상담소 기획부장)
 - 둘째날 : 조영희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상담소 간사)

- 강의 제목
 - 첫째날 : 색다른 성교육 I - 성지식과 괴임을 중심으로 -
 - 둘째날 : 색다른 성교육 II - 성적 자기 결정권과 의사소통 -

- 강사 약력
 - 첫째날 : 장 진
 - 이화여자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동 대학원 여성학과 수료
 - 청소년 성교육 캠프 진행
 - 2001년 3월-5월 고려대, 이화여대, 서울시립대 등 성교육 강의
 - 둘째날 : 조영희
 - 경희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졸업(경희대 총여학생회장 역임)
 - 청소년 및 NGO 성분과 성교육 캠프 진행
 - 2001년 3월-5월 고려대, 연세대, 서울 공대 성교육 강의

낙산학사 개장

- 개장기간 : 2001. 7. 1 (일) - 8. 18 (토)
- 접수기간 : 2000. 6. 13 (수) - 6. 15 (금)

| 실명 수용인원 | 2명 (학생실) |
|---------|--------------------------------------|
| 사용일 | 9월1일 |
| 사용관리비 | 1인당 1실 하루 ₩1,500 - (예약금: ₩10,000/1실) |
| 캠퍼스별 배정 | 서울 8실, 경주 2실 |
| 접수처 | 학생복지실 (2260-3097) 학생복지실 (770-2198) |

- 접수처, 시설사용료 및 캠퍼스별 배정 내역

| 구분 | 신청 기간 | 구분 | 신청 기간 |
|----|-----------------|-----|-----------------|
| 1회 | 7월 1일 - 7월 4일 | 9회 | 7월 25일 - 7월 28일 |
| 2회 | 7월 4일 - 7월 7일 | 10회 | 7월 28일 - 7월 31일 |
| 3회 | 7월 7일 - 7월 10일 | 11회 | 7월 31일 - 8월 3일 |
| 4회 | 7월 10일 - 7월 13일 | 12회 | 8월 3일 - 8월 6일 |
| 5회 | 7월 13일 - 7월 16일 | 13회 | 8월 6일 - 8월 9일 |
| 6회 | 7월 16일 - 7월 19일 | 14회 | 8월 9일 - 8월 12일 |
| 7회 | 7월 19일 - 7월 22일 | 15회 | 8월 12일 - 8월 15일 |
| 8회 | 7월 22일 - 7월 25일 | 16회 | 8월 15일 - 8월 18일 |

- 회차구분
 - 본교 재학생(타교생 사용불가) 외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실배정은 선착 접수순으로 하며 별도의 추첨은 없습니다.
 - 시설사용료 및 예약금은 접수시 학생복지실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된 예약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취사도구는 개인별 지참하여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학생복지실로 문의 바랍니다.

공통사회 교적복수전공 접수

- 표시과목 : 공통사회
- 신청자격 : 사회과목관련(국 사회(역사), 사회(지리), 사회(일반사회)) 이수자 중
 - 2000학번이후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이수자
 - 2001학년도 2학년 재학생인 '99학번이전 복학자로서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이수자
- 접수일자 : 2001.5.28(월) - 5.31(금)
- 접수처 : 사범대학 교학과
- 유의사항
 - 공통사회 복수전공 이수시 교원자격증만 수여되며, 학위증은 취득할 수 없음
 - 2000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사회관련 표시과목이 변경됨
 - 예시 : 사회(역사) -> 역사, 사회(지리) -> 지리, 사회(일반사회) -> 일반사회
 - 2000학년도 임용고사부터 사회과목자격증(역사,지리,일반사회)만 취득한 자(공통사회 자격증 미소지자)는 응시자격을 제한하였을 때, 공통사회 복수전공을 권장함(법, 정치외교, 행정, 경제전공, 역사교육, 지리교육)을 복수전공하여 변경된 표시과목(역사, 지리, 일반사회)만을 취득하였을 경우 사회계열 임용고사 응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예시 : 교육학과 학생이 경제학을 복수전공하여 일반사회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경우 사회과목으로 응시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음(공통사회계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범대학 교학과로 문의 바람

학 생 처

사 무 처

사 범 대 학

매체비평

라디오 편

격동 50년

“정치 외압에 굴하지 않는 목소리로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13년동안 정수하며 현대 정치사를 라디오 드라마로 들려주는 '격동 50년'.

전파에 실어보낸 현대사 50년. 88년 4월 1일 당시 첫 연출자로 나선 정수열PD가

삼국 갈 각으로 시작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40분에 여김없이 전파를 타는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의 다큐멘터리 드라마 '격동 50년'이 13년째 매달리고 있는 한결같은 작업이다. 극적인 사건이 많았던 현대 정치사는 그 자체가 한편의 드라마와 같기 때문에 라디오는 물론 TV에서도 여러 차례 현대 정치 드라마를 시도했다. 그러나 '제1공화국'에서부터 '제3공화국', '코리아게이트', '3김시대' 등의 TV 드라마들은 우여곡절 끝에 대부분 도중하차했고, 97년 대선 즈음에 '격동 50년'의 전 이름인 MBC '격동 30년'을 비롯, KBS 제2라디오 '그때 그 사건-417호 법정', 제1라디오 '한국외교비사' 등의 라디오 정치 드라마가 인기를 모으기도 했었지만 오래 가지는 못

했다. 그런 가운데 61년 5.16 군사쿠데타를 시작으로 지금의 '문민정부' 사건의 허와 실'에 이르기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정치 드라마'를 계속해온 '격동 50년'이 거둔 성과는 적지 않다. 유신선포, YH사건, 12·12, 언론통폐합, 서울의 봄, 광주민중화운동, 6·29선언, 3당합당 등 한국현대사의 주요 사건들은 물론, 새마을운동 비리, 국제그룹 해체 배경, 한미외교비사 등을 거리가없이 다루었고, 권력 핵심부에 자리했던 정치인의 육성증언을 끌어내 세간에 떠돌던 정치비화의 실체를 확인시켜 줌과 동시에 현대사를 체득하는 기록자로서의 역할도 담당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사정'을 다루면서 박준규 전 국회의장, 김윤

환 민주당 대표, 박철언, 홍준표, 박계동, 이견재 전 의원, 정성진 전 서울지검장 등의 증언을 육성으로 전해 청취자들 스스로 '문민정부'에 대한 평가를 내리도록 돕고 있다. 최근에 종영된 '소통령의 질주와 몰락' 편에 대해 "국민들이 잘 알지 못했던 YS 차남 김현철씨 구속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어 감사하다"는 의견들을 보면 '격동 50년'의 역할은 더욱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민감한 현안들을 다루는 정치드라마인 만큼 '격동 50년'이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방송이 나갈 때마다 정치인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모두 녹화하고 있으니 제대로 하라"는 협박도 감수하면서 '진실'에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드라마에서 다루는 사건의 당사자들이 대부분 생

존해 있고, 지금도 권력 상층부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언에 나선 사람들이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변명의 기회로 삼는 경우도 적지 않아 애를 먹는다. 이 경우 엇갈린 증언을 소개하면서 의문을 던지고 말기 때문에 여전히 진실은 의혹 속에 남곤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지나간 과거라도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칭찬할 것은 칭찬해야 하는데 너무 비단 일변도라 안타깝다"거나 "아무리 현장권 위주로 한다고 해도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객관적인 자세로 이야기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주문도 새겨들어야 한다. 외압이나 청취자들의 외압으로 도중하차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조은숙 매버우스 기획부장

잠자던 여성이 날개를 편다

여성권리 향상, 대학 안에서부터

얼마전 한 여학생의 자취집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태가 동아 곳곳에 불어 학생들의 이목을 끌었다. "지난 3월 24일 피해자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같은 과 친구인 가해자 및 XX군이 자취방에 놀러와서..."로 시작하는 이 대자보를 보는 학생들의 시각은 저마다 달랐으나 공통된 의견은 가해자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주어지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지난해 학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회학과 K교수 성희롱 사건 역시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모였었다. 하지만 이 두 사건 모두 처벌의 강도와 기준을 적용하는 데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어 징계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학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K교수 사건이 '반(反)성폭력학칙제정'의 여론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이러한 학내의 여론 수렴의 결과 총 4장에 이르는 구체적인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는 성과를 얻었으며, 지난 4월 17일 시행에 들어갔다. 주목할 만한 것은 대학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학칙 제정 움직임이 본교 뿐 아니라 타대학에서도 본격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선 서울대가 지난해 9월부터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 것을 선두로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등도 앞다퉈 공청회,

학생투표, 성교육을 통해 성폭력 학칙을 제정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지난 96년 서울대의 '우조교 사건' 이후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이 담론화되면서 교수들과 학생들의 성폭력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꾸준히 고쳐진 결과이다. 또한 대학 내 남성 중심문화가 90년대 이후 급격히 늘어난 여학생 비율과 더불어 남녀평등의 문화로 바뀌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뒤늦게 감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대학들의 '반성폭력학칙제정' 움직임은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한 이후에도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광범한 남성중심문화를 개선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지난 1월 '여성부'가 신설되면서 유교적 가부장제 사회인 우리 사회에서 남녀평등사상이 뿌리내리는 토대를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여성부에는 강력한 사법권이 주어지지 않아 효력을 가질지는 의문이다. 또 올 7월에 시행기로 한 '모성보호법'이 제계의 반발에 의해 2년 후로 연기됐다. 내용을 바꿔 다시 시행한다고 하는 등 제대로 된 모성보호법의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여성의 권리 향상은 대학 내에서 가능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손상민 기자 neo9292@dongguk.edu

김지혜 기자 wisdom@mail.dongguk.ac.kr



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얼마 전 흑인 시위대가 'I am man'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시민권을 요구하는 사진을 본 적이 있다. 사진 속의 흑인이 권위의 해체와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를 애타게 그리던 모습은 한국 사회의 '여성'과 많이 닮아 있다. 그러나 그 흑인은 남성이다. 만약, 흑인 여성이 'I am woman'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

었다면 어땠을까? 우리나라 말은 영어처럼 인간, 남성, 여성을 지칭하는 언어가 차별적이지 않다. 그러나 '나는 남자' 혹은 '나는 여자'라는 우리말을 살펴보면 여성이라는 의미에서 부차적 느낌을 받게 된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삶이 고정된 이미지로 전해 내려오게 된 것은 유교적 가치관의 영향이 크다. 한나라 때 '유형'이라는 유학자는 '열녀전'을 통해 어머니와 아내, 딸로서 지켜야 할 유교적 덕목을 제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절을 지켜야 하는 '열녀'의 이미지만을 부각시켰을 뿐이다. 따라서 여성을 '현모양처'와 '폭폭한 엄마'와 같은 고정된 틀에 가두려 하고 있는 것이다.

남성, 울트라 맨이야?

그러나 최근 '남녀평등'과 관련해 직장 성희롱 문제와 호주제 폐지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비록 아직까지 사회 전반적으로 남성의 힘이 지배적이지만 이 같은 여성주의의 시 작은 상당한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영동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바로 남자들의 지경고도 뻗어나 '난 아니야'라는 변명이다. 그 일이 성희롱이건 남녀차별이건 간에 아주 단순한 말 한마디로 여성을 바로

로 만들어 버린다. 온갖 잡학상식에 해박한 척 나서기 좋아하고, 정치·사회·경제·스포츠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 정통함을 자처하면서 인권이라는 입에 거품을 물고 떠드는 남자들이 말이다. 그러나 어쩌면 조금 억울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분명 그들 생각에는 자신이 성폭력을 한 적이 없고, 더더욱 남녀차별 같은 것은 입밖에도 꺼내지 않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성은 '난 아니야'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우리 사회에서 남성은 태어 단계에서부터 많은 '여성'들을 물리치고 태어났다. 그리고 '남자'로 길러지기 위해 빨래와 청소는 당연히 '여자'로 길러지는 여성의 몫이 되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은 남성을 대신해 인력감축 대상자로 지목되기까지 한다. 결국 이 질긴 한국남녀사의 시나리오가 남자들의 변명을 들어주고 있는 셈이다.

여성이어, 남성을 꺼안아라

그러나 더 이상 남성과 여성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선에 가두지 말아야 한다. 여성들 사이에서 남성을 이해하고 꺼안는 운동이 시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부는 성희롱 관련 교육강사를 모집하면서 30%의 인원을 남성강사로 채용했다. 또 각 여성단체는 남성대상 강좌를 실시하고, 새로운 남성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남성을 적이 아니라 여성과 다른 사회적 경험과 역사를 가진 한 인간으로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이다. 그리고 여성운동과 남성운동은 기본 좋은 발맞춤을 시작하고 있다.

이제 여성은 다소곳하고 순종적인 '천덕꾸러기'가 아니다. 더 이상 사무실의 꽃이고, 남편의 내조자인 동시에 자식의 시녀일 수 없다는 말이다. 남자와 더불어 당당하게 직장에 나서고, 집안을 꾸리는 동등한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사회의 남녀가 추구해야 할 아름다운 모습일 것이다.

김지혜 기자 wisdom@mail.dongguk.ac.kr

삼해지도

여성에게 성(性)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세 가지 길이 있으니 바로 삼해지도(三解之道)이다. 첫째는 직업의 구분에서 벗어나 담당해지는 것이요, 둘째는 성을 상품화한 이름 다음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셋째는 여성의 성 정체성에 대한 금기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여자가 따라야 하는 세 가지 가르침, 삼종지도(三從之道)란 이제 옛말이 되어버렸다. 오늘을 사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여성 해방의 법도, '삼해지도'의 시대가 온 것이다. 여기 여성 전문인 시대의 선두를 달리며 첫 번째 도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달 15일부터 22일에 걸쳐 진행된 '제3회 서울여성영화제'의 재능있는 여성 영화 감독들이다. 아네스 바르다, 카티아 뱅코우스키 등 세계적인 감독과 박혜민, 장희선 등 국내의 역량있는 감독들이 뛰어난 기량을 자랑한 이번 서울여성영화제는 일상의 역할

과 직업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꿈꾸기의 공간을 만들어냈다. 두 번째 도를 실천하는 데는 남성도 합류했다. 지난 19일 열린 '안티미스코리아 페스티벌'에서는 여중생 축구단, 남성 간호대생, 여성 경찰특공대, 남성 유치원 교사 지망생, 남성 여성복 패션모델 등이 함께 어우러져 신명나는 축제의 장을 펼쳤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안티미스코리아 페스티벌은 '직업의 경계를 넘어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별·나이·외모의 고정관념을 넘어 당당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내는 자리가 되었다. 마지막 도, 예전같았으면 언급하기조차 조심스러웠을 여성의 성기, 월경 등 성 정체성에 대한 금기에서 벗어나는 공간이 펼쳐진다. 다음달 3일까지 공연되는 연극 '버자이너 모놀로그'는 여성의 성기에 대한 수많은 금

기, 사춘기 소년의 당혹스런 첫 생리 경험담과 보스니아 난민캠프의 강간 등을 그려낸다. 또한 지난 99년과 2000년에 이어 올해도 열릴 예정인 '월경 페스티벌'은 "월경은 월마다 하는 경사스러운 일"이라며 월경을 단순한 생리현상이 아닌, 여성 삶의 일부로 끌어안으려 한다. 소설가 엘리자베스 마셜 토마스는 '세상의 모든 딸들'에서 "남자가 위대하다면 여자는 거룩하다"고 말한다. '세상의 모든 딸들'은 이 세상 모두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의 반이 여자라면 나머지 반은 남자"라며 여성의 자유와 인권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여성 중심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도록 충고하기도 한다. 안티미스코리아 페스티벌에서 공연된 시극의 한 대목처럼 '남성에서 여성까지 항기로운 인류애만 남고 그 모든 차별주의는 가야 할 것이다. 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메아리 직업병

▲최근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은 사람이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살펴봤을 때 같은 시기에 전체 512명이었던 직업병 환자가 무려 28.5%나 증가된 979명으로 경증 뛰어오른 것이다. 그러나 아직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한동안 직업병의 확산은 막을 수 없을 듯 하다. ▲얼마 전 본격적으로 MD정책을 내건

부시 대통령은 그 뜬금없는 '불량국가 논리'로 인해 타임지의 저명한 칼럼니스트로부터 'Are you crazy?'라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그것은 부시 자신이 불량국가들의 행동패턴을 매우 극단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과 이미 탈냉전 시대가 도래한 지 오래인 국제정세를 간과한 것으로 일축된다. 그러나 부시가 진정으로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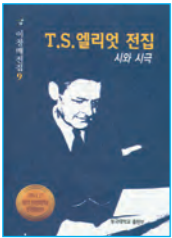
없다. 그보다 의도적으로 적을 만들고 있다는 해석이 더욱 타당하다. ▲우리나라의 이웃에도 대표적인 불량국가로 찍힌 북한이 한국의 대미 정책을 주시하고 있다. 그간 미국의 안보우선에 의존해 온 한국 안보정책으로서 미국의 입김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듯 한국은 지난 10일 미국의 MD정책에 대해 부분적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북측과 대소의 관계

악화는 불가피한 것이 되었다. 가상의 적이 점점 실재성을 띄어가고 있는 것이다. ▲혹시 부시대통령도 소위 말하는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탈냉전 이후 세계의 군사적 패권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재 미국의 현실이다. MD는 이러한 사태를 우려한 나머지 '적'이라는 매개물을 통해 다시 한번 국제 권력의 정점에서 보자는 가혹한(?) 마음이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한

순간에 남북 외교관계를 악화시켰다. 이대로는 '북·중·러'와 '한·미·일'의 삼각 체제를 고착화시키는 결과가 될 뿐이다. 그러나 그가 착각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미국이 여전히 부추기지 않는 이상 '불량국가'들이 굳이 대미체제를 고수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국제 안보의 진정한 적에 대해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미혜 생활부장 kai@mail.dongguk.ac.kr

책소식

T.S. 엘리엇 시와 시극



20세기 시해설의 새로운 지평을 연 엘리엇의 시와 시극 총 43작품을 번역하여 엮은 책. 엘리엇 연구의 필수 참고서라고 평가되는 번역 작품집으로 엘리엇의 '시 세계'를 만나 볼 수 있다.

명심보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명심보감을 포켓용으로 묶었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적용되는 명언들을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냈다.

매창전집



'이화우 흠날릴 제 물며 잡고 이별한 남...' 등 순수한 심정으로 노래를 읊으며 짧은 인생을 꽃처럼 살다간 매창의 삶을 살핀다.

알몸 박정희



18년동안 독재권력을 행사하던 박정희의 실체를 해부한 책. 저자는 근대화 혁명가, 1급 친일파, 독재자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얼굴은 박정희의 겉질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내게는 아직 한쪽 다리가 있다



만 아홉 살에 소아암으로 짧은 생을 마친 '대관'의 투병사들을 모아 엮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웃을 만큼, 고통과 절망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굳건한 용기와 인내심을 보여준 대관의 이야기에서 삶의 의미를 되짚어본다.

주대관·송방기 공저/ 파랑새 어린이/ 정가 7천5백원.

공연소식

그녀가 죽었다



미술계와 연극계를 넘나드는 크로스 오버 바람이 분다. 미술인 조계형이 연극 형식을 빌려 자기 내면의 세계를 보여주는 연극 '그녀가 죽었다'는 자살을 통해 삶의 불안과 긴장을 극복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물 속에서 숨쉬는 자 하나도 없다



극단 76단이 여관집 종업원들과 자살여행은 투숙객의 절망을 희극적으로 풀어 낸 '물 속에서 숨쉬는 자(者) 하나도 없다'를 공연한다.

로미오와 줄리엣



극단 목화가 비극적인 사랑의 종말을 다룬 '로미오와 줄리엣'을 무대에 올린다. 두 가문의 증오와 탐욕 속에서 피어나는 순수한 사랑이야기를 마치 마당놀이처럼 보는 듯한 착각에 빠지도록 국내 실정에 맞게 재구성했다.

행사소식

국가보훈처 학술논문공모



국가보훈처는 창설 40주년을 맞아 학술논문을 공모한다. 생활 속의 보훈문화 확산, 독립운동사의 재조명 및 사료발굴, 남북 화해·협력시대의 바람직한 보훈정책 개발을 주제로 하며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대상이다.

MBC 애드컴 애드챌린지

MBC 애드컴이 '제2회 MBC 애드컴 애드챌린지'를 개최한다.



홈페이지(www.mbcad.com)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을 수 있다. 문의 3279-3374

동산반야회 불교교리강좌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반야회가 불교의 기본 교리를 공부하는 사람이나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교교리강좌'를 개설한다.

2001 춘천국제마임축제



호반의 도시 춘천이 말없는 몸짓으로 달아오른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춘천국제마임축제'는 세계 각국의 마임단체가 참가하며 현대마임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자리로 꾸며질 예정이다.

한의학 남측 논문 대회



남북청년학생에서 분단된 조국의 '민족의학' 학술교류를 위해 논문을 공모한다. 채택된 논문은 4백만원 상당의 상금이 주어지며 북측과의 교류가 이뤄질 경우 토문자료로 사용된다.

게임소식

니르바나



재가신도들이 설립한 디지털 포교 전문회사 불교사랑이 불교포교 교육용 게임 '니르바나'를 출시했다. 게임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교 기초교리 및 상식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한 '니르바나'는 중국 고전 '서유기'를 바탕으로 전개되며 게임 속 퀴즈를 풀어가는 동안 불교를 알아갈 수 있다.

동아리 탐방 - 경주캠 문학동아리 '동국문학회'

시인의 가슴으로 열정을 노래하는 사람들

꿈임없는 문학활동, 신춘문에 등단으로 이어져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대중문화의 홍수 속에 순수문학의 모태가 돼 인간의 감성을 무한한 창작력으로 이끌어내는 곳이 있다.

'우리는 가슴으로 말하는 사람들이므로 진실을 말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1979년 탄생한 동국문학회가 바로 그곳이다.

'가슴으로 말하는 사람' 즉 우크라이나어로 '시인'이라는 말을 모토로 사용할 만큼 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곳 회원들은 매주 수요일 오후가 되면 기본적인 글쓰기 훈련과 작품토론 시간을 가진다.



시화전이 열린 원효관 중정에서 한 관객이 시를 감상하고 있다.

그들의 문학세계가 넓어지는 또 하나의 계기가 있다. 일년에 두 번 정기 시화전을 열어 자신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것이다. 특히 전시회 마지막 날에 가지는 시낭송회와 국문과 교수의 비평은 서로의 작품을 진지하게 감상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열어 백일장 대회와 토론회 등 문예활동을 그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것이 있는 듯 조유인 회장은 "감각적인 문화에 밀려 순수문학이 외면당하는 모습이 지금의 현실이다"는 안타까움의 말과 함께 "지금의 모습을 지켜가기 위해서라도 정기 문집 발간과 현지답사를 통해 문학활동영역을 넓히고 싶다"라는 말을 전했다.

동아리 활동의 어려움을 말하기보다 오히려 자유로운 창작의 열정을 불태우는 그들의. 자신들의 문학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그마한 휴식처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처럼 한 사람의 내일을 이끌 수 있는 인간적인 시를 창조하는 동국문학회가 되길 바란다.

정윤미 기자 copy@mail.dongguk.ac.kr

나에게 맞는 자격증을 찾아라

바이프로 자격증이 난무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어느 대학의 어느 과를 나왔다'라는 자기PR보다 무수무수 자격증이 있다는 말에 더 믿음이 가는 요즘 과연 어떤 자격증을 따는 것이 현명한 것일까? 자격증이란 희소가치가 있고 시대의 흐름에 앞장설 때 그 가치가 높아지는 법.

Table with 3 columns: Skill, Number of people, and Exam type. Includes categories like Word Processor, Computer Skills, and Information Technology.

Table with 2 columns: Job/Field and Description. Lists various jobs like Marketing, Government, and IT with their respective requirements.

Infographic titled '손것으로 나누는 사랑 V' (Love shared with hands V). It lists various skills and their benefits, such as '길' (Path) for stress relief and '물' (Water) for hand hygiene.

동국관 학생식당 차림표

Table listing menu items and prices for Dongguk University Student Cafeteria. Items include Kimchi Jjigae, Bulgoghguk, etc.

상록원 학생·교직원식당 차림표

Table listing menu items and prices for Sangnokwon Student and Faculty Cafeteria. Items include Bibimbab, Bulgoghguk, etc.

독자광고

독자광고는 함께 일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하숙집 구함, 야학교사 모집, 각 동아리·학생회 소모임 등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등 분야에 제한없이 순수한 독자들의 광고로 이루어집니다.

Advertisement for the 20th National University Student Festival (제20회 전국대학생연맹대제전). Features a large image of a person and text about the event.

Advertisement for the 25th Dongguk University Education Research Conference (제25회 동국대학교 교육방송국 방송제). Lists topics and speakers.

Advertisement for 'Bongmal No. 1 Songwriter' (바꿈말 노래사랑). Promotes a competition for songwriters.

Advertisement for 'Young Image Model Contest' (영상사진예술포럼). Promotes a contest for young models.

경주캠 학생회관 식당 차림표

Table listing menu items and prices for Gyeongju Campus Student Union Dining Hall. Items include Kimchi Jjigae, Bulgoghguk, etc.

Advertisement for a meeting (김해 가이그 동문회). Announces a meeting for alumni.